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록

- 일 시 : 2010. 5. 27(목), 14:00~16:1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유영렬(위원장), 김영식, 김정동, 김정신, 신승운, 이경희, 장석홍(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 심의	공개
2	등록 제6호 「내덕동 청주상고 구분관」 명칭 변경 심의	공개
3	사적 제497호 「이화장」 보호구역 추가지정 심의	공개
4	사적 제157호 「환구단」 주변 옥상광고물 설치 현상변경 심의(주 재능교육)	공개

【검토사항】

5	「엄복동 자전거」 문화재 등록 검토	공개
6	「전차 381호」 문화재 등록 검토	공개
7	「명신여학교 교사자료」 문화재 등록 검토	공개
8	「작곡가 윤이상 육필악보」 문화재 등록 검토	공개
9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문화재 등록 검토	공개
10	「밀양 명례성당」 문화재 등록 검토	공개
11	「부안 당산마루」 문화재 등록 검토	공개
12	등록 제64호 「군산 동국사 대웅전」 문화재 추가등록 검토	공개
13	등록 제261호 「성주 한개마을 옛담장」 문화재 등록말소 검토	공개
14	등록 제330호 「부산 정란각」 문화재 등록말소 검토	공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안건번호 근대2010-03-001

1.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 심의

가. 제안사항

문화재 등록예고 기간이 만료된 「한국광복군 군복」 등 7건의 근·현대 군사유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검토('10.4.1)를 거쳐 등록예고('10.4.15~5.14)된 「한국광복군 군복」 등 7건의 근·현대 군사유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육군박물관 소장 「한국광복군 군복」 등 7건
 - 심의 대상 목록

연번	명칭	수량	규격, 재질	제작시기 제작(사)	소유자 (소장처)	비고
1	의병장 김도현 칼	1건	길이 44.5cm, 나무·황동·철	대한제국기 추정	독립기념관	
2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L-4 연락기)	1건	가장 682cm 기폭 1073cm	1940년대 미국 (PIPER)	공군사관학교	
3	면제갑옷	1건	앞길이 82cm, 앞폭 48.5cm 면직물	1866~1870년	국립중앙박물관	
4	한국광복군 군복	1건 2점	상의:길이 62, 품 46cm 하의:길이 94 허리둘레 98cm 면직물	1945년 추정	육군박물관	
5	대한민국 육군기	1건	127×98.5cm 폴리에스테르직물	1948년	육군박물관	
6	백두산함 돛대	1건	폭5.2, 높이11m 목재, 철	1949년 이전 미국	해군사관학교	
7	휴전협정 사용 책상	조인서 1건	183×124×77cm 목재	1900년대 초	전쟁기념관	

- (3) 주요 추진경과

- 근대문화유산 군사유물 목록화 조사 용역('09.3.30~8.29, 118건 목록화)
-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10.1.1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일자/대상 : '10.2.9~3.9 / 육군박물관 소장 「광복군 군복」 등 19건
 - 조사자 : ○○○·○○○ 위원, ○○○ 위원(동산분과), ○○○·○○○ 전문위원, ○○○ 전 단국대 교수, 서울여대 조교수 ○○○
- 문화재 등록예고('10.4.15~5.14) 7건
 - 김도현 칼,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L-4 연락기), 면제갑옷, 한국광복군 군복, 대한민국 육군기, 백두산함 돛대, 휴전협정 조인시 사용 책상
- (4) 예고 시 제출의견(전화의견, '10.4.15)
 - 「김도현 칼」 명칭에 있어 '의병장'이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임.
- (5) 심의사항 : 육군박물관 소장 「한국광복군 군복」 등 근·현대 군사유물 7건에 대한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2.9~3.9)>

- 문화재위원 ○○○ 등 7인 의견 : 붙임 참조

<근대문화재과>

- 예고내용대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김도현 칼」은 「의병장 김도현 칼」로 명칭 변경 검토할 필요 있음.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원안대로 등록함(7건).
 - 의병장 김도현 칼, 한국광복군 군복, 면제갑옷,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L-4 연락기), 대한민국 육군기, 백두산함 돛대, 휴전협정 조인시 사용 책상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 1부

< 붙임 >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

1. 목 적

- 우리나라 근대사와 궤를 같이 하며 국토방위 역할을 수행한 군사분야 유물을 조사하여 역사적 · 자료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등록 · 보존함
- 근대군사유물의 문화재적 평가 및 가치 부여를 통해 근대 동산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심을 제고함

2. 추진경과

- '08.5.22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조사용역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09.3.30~8.29 근대문화유산 군사유물 목록화 조사 용역(118건 목록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10.1.19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 '10.2.9~3.9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조사(6곳, 19건)

3.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 '10.2.9(화)~3.9(화), 기간 중 4일

나. 조사대상 및 일자

소 장 처	일 자	수 량	비 고
국립중앙박물관	'10.2.9(화)	1건	면갑
육군박물관	'10.2.9(화)	6건	광복군 군복, 대한민국 육군기 등
전쟁기념관	'10.2.10(수)	6건	병인일기 등
독립기념관	'10.3.8(월)	3건	의병장 김도현 창의검 등
공군박물관	'10.3.8(월)	2건	L-4 연락기 등
해사박물관	'10.3.9(화)	1건	백두산함 마스트
계 6곳		19건	

다. 조 사 자 (관계전문가 7명)

- 문화재위원 ○○○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문화재전문위원 ○○○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문화재전문위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군사사)
- 전 문화재위원 ○○○ (복식사), 서울여대 조교수 ○○○ (한국복식) / 복식류 5건
- 문화재위원 ○○○ (서지학) / 문서류 3건
- 문화재위원 ○○○ (보존처리) / 독립기념관 및 공군박물관 소장 금속류 5건

라. 조사유물 : 19건 (무기류 9건, 복식류 5건, 문서류 3건, 기타 2건)

마. 조사내용 : 관계자 인터뷰, 군사유물 실사 및 문화재적 가치 검토 등

4.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가. 근대군사유물 목록화 조사용역 ('09.3.30~8.29,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우리나라 근대군사사 개관 및 연혁, 근대군사유물 현황 실태조사
- 무기류(도검, 총, 대포, 장갑차, 항공기), 복식류, 문서류 등 118건 목록화

나. 조사대상 선정

- '09년 목록화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6곳, 18건)
- 현지조사 시 1건 추가 조사(양헌수 장군 문집 '하거집')

다. 조사방법

- 유물의 외형·구조 및 보존실태 등을 현지조사, 용역결과와 비교 검토
- 소장처 관련자와 출처, 소장 경위 등 인터뷰 및 추가자료 수집·연구

5. 등록기준(안)

- 근대기에 제작·사용된 군사 관련 유물 중 군사사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
- 유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크며 희귀한 것
- 우리나라 근대군사 발전에 기여하고 유물 제작 당시의 기술상황·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 다수의 동종 유물인 경우 제작·사용 시기가 앞서거나 국산인 것

6. 조사결과

가. 검토 대상 목록 (문화재위 상정 대상 8건)

연번	명칭	수량	규격, 재질	제작시기 제작(사)	소유자 (소장처)	비고
1	의병장 김도현이 사용하던 창의검(倡義劍)	1건	길이 44.5cm, 나무·황동·철	대한제국기 추정	독립기념관	
2	L-4 연락기	1건	가장 682cm, 기폭 1073cm	1940년대 미국(PIPER)	공군사관학교	
3	면갑(綿甲)	1건	앞길이 82cm, 앞폭 48.5cm	1866~1870년	국립중앙박물관	
4	광복군 군복	1건 2점	상의:길이 62, 품 46cm 하의:길이 94, 허리둘레 98cm 면직물	1945년 추정	육군박물관	
5	병인일기(丙寅日記)	1건	20.2×22.9cm 종이	1866년	전쟁기념관	
6	대한민국 육군기	1건	127×98.5cm 폴리에스테르직물	1948년	육군박물관	
7	백두산함(PC-701) 마스트	1건	폭5.2, 높이 11m 목재, 철	1949년 이전 미국	해군사관학교	
8	휴전협정 조인(調印) 시 사용된 책상	1건	183×124×77cm 목재	1900년대 초	전쟁기념관	

나. 유물별 주요특징 및 가치

1) 의병장 김도현이 사용하던 창의검(倡義劍)

- 경상북도 안동 지방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한 김도현(金道鉉, 1852-1914) 의병장이 사용하던 칼. 김도현의 손자가 1985.1.24 다른 유품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에 기증. 칼에 “三寅劍”, 칼집에 “倡義劍”이라 각인됨. *나무칼집은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 김도현은 1896년 2월 유시연과 함께 영양·안동 지방의 의병을 모아 청량산에서 기병

함. 봉화와 영주를 점령하여 군수가 바치는 군기(軍器)로 무장하고 안동으로 진군하였으며 청송·의성·영덕·영해를 순방하며 의병 봉기를 촉구함. 1907년 고종이 직접 의병 봉기를 촉하는 밀지를 내리자 의병을 일으키려다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피체됨. 후에 의병을 해산하고 영양에 영흥학교를 세워 육영사업에 힘쓰다 1914년 망국을 개탄하는 시를 남기고 영해의 관어대 앞바다에서 자결함.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2) L-4 연락기

- 1940년대 미국에서 생산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에서 연락용 항공기로 사용하다, 1948.9.13. 대한민국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가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항공기 10대 중 1대. 조종석이 전후방으로 된 2인승 연락용 경항공기
- 6.25전쟁 초기 후방석의 관측사가 폭탄을 품에 안고 출격·투척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여수·순천사건의 진압 및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에서 공중지원 임무를 수행하여 대한민국 공군사에 큰 족적을 남김. 이후 육군에 파견되어 연락, 지휘관 수송, 조종사 양성과 정비사 교육에 사용되다 1954년 L-19 연락기 도입에 따라 퇴역

3) 면갑(綿甲)

- 총탄 방어를 목적으로 면을 여러 겹 넣어 만든 갑옷. 탄성이 큰 섬유조직을 이용해 총탄을 방호하는 원리. 1866년 병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총탄을 막아낼 갑옷 제조를 명하고 무기제조자 김기두와 강윤은 조정의 명에 따라 거듭된 실험으로 면 12겹에는 총탄이 뚫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면 13겹으로 면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음. 1871년 신미양요에 첫 실전 투입하여 총탄 방어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더위, 화기, 습기에는 취약하였음.
- 이 면갑은 무명을 30장 겹쳐 만든 것으로 안쪽에 소유자로 추정되는 먹글씨 “孔君玉”이 쓰여 있음.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면제갑옷으로서 갑옷 발달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임.

4) 광복군 군복

- 광복군 예비대 군복으로 상·하의 한벌.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는 1945.2.19. ‘군인제복 양식 제정안’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함. 그 전까지는 일정한 제복이 없이 중국식의 군복과 표지를 사용했으나, 복식제식이 정해진 후 독자적으로 광복군의 표지와 군복을 사용하거나 착용하였음.
- 우리나라 광복군 복장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현재까지 발견된 국내 유일의 광복군 군복임.

5) 병인일기(丙寅日記)

- 병인양요 당시 조선군을 지휘하여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던 양헌수(梁憲洙, 1816-1888) 장군의 일기. 출전일인 1866.9.3.-10.26.(음력)까지 내용이 기록된 전사본임. 양헌수의 5대 종손이 가문에서 보관해 오던 장군 관련 유품 102점과 함께 기증한 것. 이 일기를 통해 외교문서 ‘전격양박도주(傳檄洋舶都主)’가 양헌수 장군이 쓴 것임이 밝혀짐.
- 병인양요의 대표적인 기록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님.

6) 대한민국 육군기

- 1946년 4월 새로 제정된 육군 모표(帽標)를 표상으로 한 대한민국 육군 초창기 깃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육군기로서 유일본. 1946년 1월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

서 군복은 비록 일본군 군복을 착용하였으나 모표만은 우리 것을 제정·부착하였음.

7) 백두산함(PC-701) 마스트

-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이었던 백두산함(PC-701)의 돛대. 해군 창설 이후 제대로 된 전투함 한 척 없던 상황에서 해군 장병과 가족의 성금으로 1949.10.17. 미국에서 구입 후 백두산함이라 명명함. 6.25전쟁 발발 당일 북한 무장선박을 발견하고 이튿날 격침한 ‘대한해협 해전’은 한국전쟁 기간 중 우리 해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최초의 해상전투로 북한의 후방 교란술책을 사전에 봉쇄한 기념비적인 전투. 이후 동·서·남해의 최전방에서 해양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1959.7.1 퇴역
-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앞에 설치·전시된 백두산함의 돛대는 우리나라 해군의 상징적 유물로서 대한민국 해군 창군 정신과 해양수호 정신 계승의 상징성이 큼.

8) 휴전협정 조인시 사용된 책상

-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할 당시 미국측 대표인 클라크(Mark C. Clark) 유엔군 사령관이 사용한 책상. 1951.7.10. 개성에서 첫 회담이 개최된 이래 2년 이상 협정이 맺어지지 않다 1953.7.27.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됨.
- 6.25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당시 사용되었던 책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휴전 또는 정전상태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

다. 유물 현황사진

1. 의병장 김도현 창의검	2. L-4 연락기	3. 면갑	4. 광복군 군복
			
5. 병인일기	6. 대한민국 육군기	7. 백두산함 마스트	8. 휴전협정 조인 책상
			

라.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1. 의병장 김도현이 사용하던 창의검(倡義劍)

< 문화재위원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김도현 창의검
- 안동지방에서 항일의병활동을 전개한 김도현(金道鉉, 1852~1914)이 사용했던 것으로 칼에는 “三寅劍”, 나무 칼집에 “倡義劍”이라 각인되어 있다. 나무 칼집은 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김도현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 문화재위원 ○○○(보존처리) >

- 이 칼의 길이는 44.5cm 단도이다. 손잡이는 나무, 스페는 황동, 도신은 철로 제작되었다. 칼집은 나무로 만들었고 “倡義劍”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또 이 칼 스페 아랫부분에 “三寅劍”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인년, 인월, 인일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인검(조선 중, 후기) 9점에는 삼자가 아닌 參寅劍으로 새겨져 있으며, 칼의 길이는 모두 1m~1.3m장도로 북두칠성 문양은 금과 은으로 상감되어 있다.
- 이 칼 자체로만 보면 예술성, 학술성 가치는 매우 부족하나 의병장 김도현의 의병활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연계해서 본다면 등록문화재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 문화재명칭(안) : 의병장 김도현 창의검(倡義劍)
- 경상북도 안동지방에서 항일의병활동을 전개한 김도현(金道鉉, 1852~1914)이 사용했던 것이다. 일명 ‘삼인검(三寅劍)’으로 불렸다. 김도현은 경상북도 영양에서 태어났다. 1896년 1월 유시연(柳時淵)과 함께 청량에서 기병(起兵)하였고 적과 수차례 접전하던 중 고종의 해산 조칙으로 의병을 해산하였다.
- 1906년 4월에 조신 강창희(姜昌熙)를 통하여 “경은 우리 선왕을 생각하고 우리 생민을 동정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먼저 적들을 소탕하고 간흉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원수의 나라를 물리치라. 대대로 국록을 경과 함께 할 것을 맹서한다.”라는 내용의 고종 비밀 조칙을 받고 삼남 지방 사람들에게 격문을 돌려서 재차 의병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사방으로 전개하니 영남 각 지방에서 호응하였다. 그러나 일을 진전 시키던 중 일제에 의해 사전에 발각되어 1907년 2월에 체포되어 대구감옥에 수감되었다. 1909년에는 학교를 설립하여 육영사업에 힘쓰다가 1910년 국권을 상실하자 고향에 은거하다가, 1914년 7월 부친마저 세상을 떠나자 영해의 관어대에서 투신자살하였다.
-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나무 칼집에는 “창의검”이라 각인되어 있으며, 본 유물은 사용 내력 및 명세(明細)가 명확하고, 한말 의병을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므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군사사) >

- 문화재명칭(안) : 김도현 의병장의 창의검

- 경북 안동지방에서 항일의병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도현의 호신용 칼로서 김도현 의병장의 손자인 김기팔이 1985.1.24. 다른 유품들과 함께 기증한 것으로 소장 경위나 이력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칼집에는 창의검, 칼에는 삼인검이라는 글씨가 각인되어 있다.
- 김도현 의병장은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고향을 근거지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의 손자에 의하면, 그때 항상 창의검을 갖고 다녔다고 한다. 사용내력과 명세가 명확하며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가 다른 유품과 함께 기증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2. L-4 연락기

< 문화재위원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L-4 연락기
- 1948.9.13. 대한민국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가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항공기 10대중 1대이다.
-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로 6.25전쟁에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공군도 1982년부터 공군 군사재 제1호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인정한 바, 등록할 가치가 있다.

< 문화재위원 ○○○(보존처리) >

- 이 항공기는 1948년 9월13일 대한민국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가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10대중 1대일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이다.
- 이 항공기는 제주도 공비특별작전 및 한국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한 역사적 항공기로, 현재 남아 있는 동종의 유일한 항공기로 등록문화재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 문화재명칭(안) : L-4 연락기
- 본 항공기는 1948.9.13. 대한민국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가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항공기이다. 이 항공기로 초창기의 우리 공군은 조종사 양성에 힘쓰는 한편 제주 4.3사건, 여수·순천사건에 출동하여 공중지원 작전을 수행하였고, 6.25전쟁 초에는 후방석의 관측사가 폭탄을 품에 안고 출격 투척하여, 인민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대한민국 공군사에 길이 빛날 신화를 창조하였다.
- 1981년에 11전투비행단에서 공군사관학교 공사기념관으로 이관한 이후 야외항공기 전시장에서 전시중이다.
- 본 유물은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10대 중 1대이며, 6.25전쟁에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한 공군사에 길이 빛날 역사적 항공기이며, 공군에서 1982년 공군 군사재 제1호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기종으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군사사) >

- 문화재명칭(안) : L-4 연락기
- 1948.9.13. 공군의 전신인 육군 항공대가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한국 최초의 항공기이다. 당시 10대를 인수하였으나 현재 1대만이 남아있다. 이 유물은 여수·순천사건(1948.10.19) 당시 공비특별작전에 크게 활약하였으며, 전쟁시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갖고 있다. 1981년에 11전투비행단에서 공군사관 학교로 이관한 이후 야외항공기 전시장에 전시하고 있어 사용내력과 명세가 분명하다. 공군은 1982년 공군 군사재 제1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3. 면갑(綿甲)

< 문화재위원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면갑(綿甲)
- 개인화기(個人火器) 방어를 목적으로 면을 여러 겹 누벼 만든 갑옷으로 병인양요(丙寅洋擾)가 지난 후 대원군이 김기두와 강윤에게 면제배갑(綿製背甲)을 만들게 하였다. 현재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면갑은 무명을 30장 겹쳐서 만든 것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 문화재명칭(안) : 조선후기 면갑
- 고종 초 병인양요가 지난 후 대원군은 김기두와 강윤으로 하여금 면제 배갑(綿製背甲)을 만들게 하였다. 면갑의 첫 실전 투입은 1871년 신미양요에서였다. 개인화기(個人火器) 방어를 목적으로 면을 여러 겹 누벼 만든 갑옷이다. 섬유질의 탄성을 이용해 총탄을 방호한다는 원리이나 실전에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총탄을 방호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더위와 화기(火氣) 그리고 습기에 대단히 취약하여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존처리를 위해 소장 중이고, 육군박물관이 수탁 받아 전시하던 이 면갑은 1916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조선주차군(朝鮮駐劄軍)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 신미양요 당시 미국이 노획하여 현재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소장 중인 것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 유물이 현존하는 유일한 면갑이며, 갑옷 발달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이고, 신미양요 관련된 유물이라는 점에서 등록하는 것이 좋다.

< 문화재전문위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군사사) >

- 문화재명칭(안) : 면갑
- 면갑은 고종초 병인양요가 지난 후 대원군이 김기두와 강윤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으며, 실험 결과 총탄이 관통하지 못하였다. 면갑의 첫 실전 투입은 1871년 신미양요에서였고 실전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 신미양요 당시 미국이 노획하여 현재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된 동종이 한 점 있다. 이는 국내유일의 면갑이므로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 전 문화재위원 ○○○(복식사), 서울여대 조교수 ○○○(한국복식) >

- 조선시대 면갑에 관한 기록은 「인조실록」 인조 5년(1627) 5월 12일에 “綿甲이나 紙甲도 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이미 면갑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서는 목면갑주나 목면갑의로 표기되어 있다.¹⁾ 「근세조선정감」(1886)

1)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66.

에 면갑은 “흥선대원군이 개발한 군기 중에 면포로 만든 배갑(背甲)이 있었다. 일본과 서구 열강의 문호 개방 요구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모으고 있던 중에 면포가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험 제작 후에 갑옷의 제도를 완성하고 착용 훈련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면포가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흥선대원군이 이를 시험해 보았다. 면포 몇 겹에 숨을 둔 후 화살을 쏘아보니 모두 꿰뚫어 버렸고, 12겹을 겹쳤을 때에야 꿰뚫지 못했다. 마침내 포군으로 하여금 면포 13겹에 숨을 두어 만든 배갑과 등나무로 만든 투구를 착용하고 훈련하도록 하니, 한여름에는 군사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여 모두 코피를 쏟았다.”²⁾라고 하여 면갑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 1> 1871년 신미양요 당시 조선군 면갑착용 모습



<그림 2>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소장 면갑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갑과 유사한 형태의 면갑이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 측에서 찍은 사진자료³⁾<그림 1>에도 조선 포병들이 착용했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인이 점령한 요새에는 40겹의 무명베로 된, 칼도 총칼도 뚫을 수 없고 오직 원추형의 탄알만 꿰뚫을 수 있는 갑옷과 투구가 있었다고 한다.”⁴⁾ 이로 미루어보아 「近世朝鮮政鑑」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갑과 동일한 형태로 추정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갑과 동일한 형태의 면갑은 일본 국립동경박물관, 미국 Smithsonian 박물관에 각 1점이 있다.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소장 면갑은 투구와 허리띠가 함께 소장되어 있어 면갑의 완형을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길이는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면갑보다 좀 길어 보이고 가슴부위에 사각형으로 된 여러 겹으로 된 천을 덧대어 가슴부위를 보강하였다. 허리띠는 넓은 천으로 허리에서 매게 되어 있고 전면에는 많은 글씨가 날인되어 있고 뒤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직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투구는 원추형으로 전후에 근철을 댄 것 같고 투구 정상에는 간단한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투구의 앞쪽에는 짧은 채양이 부착되어 있고 양옆과 뒤는 하나로 된 목가리개가 부착되어 있다. 투구에도 자문이 날인되어 있다.”⁵⁾

2) 朴齊炯 著, 李翼成 譯, 「近世朝鮮政鑑」, 1886(丙戌), 탐구당, 1975, p.75 위의 글, p. 66 재인용.

3) 「수자기 帥字旗-136년 만의 귀환」, 국립고궁박물관, 2008, pp. 50-51.

4) 샤를르 달레 著 丁奇洙 譯, 「朝鮮教會史序論」, 再版, 탐구당, 1977, p.73 위의 글 p. 66 재인용.

5) 김정자, 「한국 군복의 변천사 연구」, 민속원, 1997, p. 5, p. 236.



<그림 3> 면갑 앞



<그림 4> 면갑 뒤



<그림 5> 면갑 안



<그림 6> 면갑안의 묵서 “孔君玉”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갑은 갑옷의 일종으로 여러겹의 무명을 중첩하여 만든 것이다. 겹감과 안감 모두 무명으로 만들었고 면갑 속에는 무명 30겹을 넣어 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배당(裨裳)이나 배갑(裨甲)과 유사한 형태이다. 「한국의 갑주」에는 30겹⁶⁾이라 하였고, 현지 조사 당시 육군박물관 실무자도 30겹이라 증언하였다. 참고로 KBS TV에서 2010.2.12. 무명 30겹을 넣어 만든 면갑으로 실험한 결과 화살이 뚫지 못했다.⁷⁾ 이 면갑은 조선조 고종 대에 제작되어 신미양요(고종 8년, 1871)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태는 소매가 없고 앞길과 뒷길이 한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양옆이 모두 트여있다. 앞보다 뒤가 더 넓으며, 오른쪽 어깨에는 매듭단추가 달려있고, 어깨에서 앞뒤가 연결되어 펼치면 한 장이다. 목둘레는 둥근 모양으로 깃을 따로 만들어 달지는 않았고, 1.5cm 너비의 바이어스 테이프로 들렀으며 앞뒤 파임의 형태는 같다. 길의 형태는 앞과 뒤가 다른 모양으로, 앞길은 무가 없으며 뒷길에는 좌우에 사다리꼴형의 무가 있다. 오른쪽 어깨는 트임이 있어 앞뒤에서 겹쳐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으며, 겨드랑이는 모두 트여있어 활동성을 극대화하였다. 앞뒤의 여밈은 겨드랑이 아래에서 좌우의 고름(끈) 4쌍으로 여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고름은 4개가 남아 있다.
- 육군박물관에 전시되다 조사 당시에는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되어 있던 이 면갑은 바느질선이 트인 부분이 있고 오염이 심하고 안감의 뒷길에는 녹 흔적<그림 5>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이 흔적은 점 모양으로 일정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 면갑이 두정갑과 함께 오랜 시간 겹쳐 보관된 걸로 추측된다. 색상은 오염되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염된 연회색 바탕에 연분홍빛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면갑에 사용된 옷감은 밀도 1cm에 15×14올의 거친 목면이며, 안감은 겹감의 밀도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거친 소색(素色)의 면으로 만들었다. 안길 앞길의 중심에 ‘孔君玉’이라는 인명으로 추정되는 먹글씨가 쓰여 있다. ‘공군옥’이 인명이라고 추정해 보면 이 면갑이 사용된 시기와 동시대 인물인 ‘박규수(朴珪壽, 1807-1877)’의 문집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박규수는 1861년 연행사절의 부사

6) 이강철 외, 「韓國의 甲冑」,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pp. 15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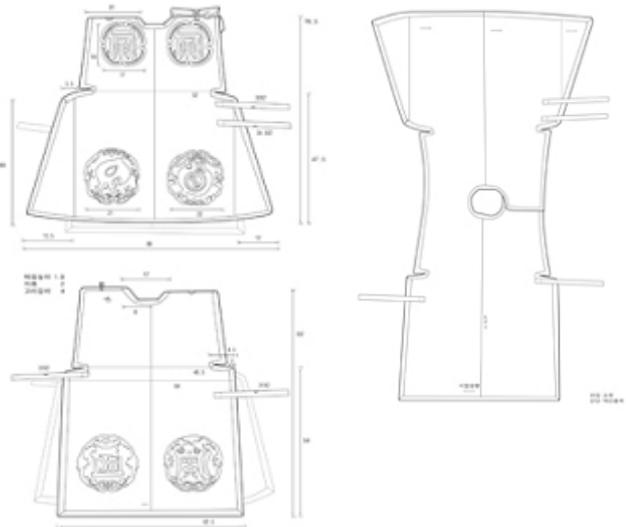
7) KBS 1TV 설특집 ‘시간여행’ 2010년 2월 12일 방영.

로 중국에 다녀왔고, 1866년 평안도 관찰사로 재임하는 중 서면호사건을 겪었으며, 1872년 진하사의 정사로 다시 중국을 다녀왔다. 1875년 최익현 등의 척화주장을 물리치고, 일본과의 수교를 주장하여 강화도조약을 맺게한 인물”⁹⁾이다. 이 문집은 박규수가 사신으로 2번째 중국에 갔을 때 작성한 편지로 공군옥이 등장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동생(규수)은 사신의 명을 받들어 연경에 갔다가 지금 조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비록 새로운 지식을 얻어 연회를 여는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비는 쓸쓸히 내리는데 오직 공군옥(孔君玉)만이 있어 서로 대화하고 산에서 함께 잡자는 인연을 맺으니 갈팡질팡하던 것이 점점 위안이 됩니다.”고 하였다. ‘孔君玉’이 인명이 아니라면, 몸을 보호하는 부적과 같은 용도의 글귀로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갑에는 검정색 문양이 앞 길 하단에는 2개, 뒤길 상단과 하단에는 만다라로 보이는 문양 4개가 찍혀 있다. 문양은 壽자를 변형한 것과 석류와 복숭아를 형상한 祈子문양과 뜻을 알 수 없는 문양이다. 면갑에 찍혀져 있는 문양의 크기는 상단은 16×17cm 크기이며, 하단의 문양은 좀 더 커서 21×22cm 정도이다. 육군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판염으로 인쇄된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시문된 갑옷 <그림 7, 8>이 있다. “이 갑옷은 두정갑으로 겉감은 황색 바탕에 무늬가 있는 단(緞), 안감은 청색 목면으로 속에는 소가죽 미늘이 있다.”¹⁰⁾



<그림 7> 육군박물관 소장 면갑 앞 <그림 8> 육군박물관 소장 면갑 뒤



<그림 9> 면갑 실측도

<그림 10> 면갑 실측도(안)

- 갑옷에 문양을 찍기 위한 목판은 “고종 9년(1872)에武威營에서 새로 구비한 甲衣紋板 4개가 10년 뒤인 1882년에도 파손된 곳 없이 온전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다

8) 臧齊先生集卷之十: “翔雲尊兄觀察閣下。相去萬里。魚鴈沈沈五六年矣。辛酉歲 會飲松筠菴。兄讀椒山諫艸。有千秋俯仰心如醉。我亦人間駕部郎之語。余別詩有云且看諫艸堂前竹。再度來時綠滿園。夫豈竹之云乎。今來縱不與吾兄相見。此竹已森森作歲寒姿。徘徊咏言。懷可知也。昨見椒山墨蹟。飲酒讀書四十年。烏紗頭上是青天。男兒欲到凌烟閣。第一功名不愛錢。此固兄所慣記。而今復爲之一誦。想領會此意也。弟奉使入都。今將東還。雖不無新知作讌會爲樂。舊雨落落。惟有孔君玉雙話繡山宿緣。稍慰悵悵。欲寄書不知何當得傳去。仍念作此大幅。送掛壁上。可時時如面不相忘。援筆荒雜。亦不計耳。望文翁之化。益副遠望。壬申”

9) <http://100.naver.com/100.nhn?docid=69329>

10) 이강칠 외, 앞의 책, p. 212, p. 242.

는 기록이 있다. 이 갑의문판은 아마도 목면갑주와 木綿皮甲 유물에 보이는 印紋을 찍기 위한 도구였을 것이라 추정되고, 직조로써 문양을 표현할 수 없었던 면직물에는 대신 이러한 도장무늬를 찍어 갑옷을 제작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 같다.”¹¹⁾

- 면갑의 치수<그림 9, 10>는 앞길이 82cm, 뒷길이 76.5cm로 뒤길이가 5.5cm 짧다. 품은 앞이 48.5cm 뒤가 52cm, 진동은 29cm, 어깨나비 22cm, 진동 18cm, 목과임 15.5cm, 앞도련 62.5cm, 뒷도련 88cm이다. 매듭의 크기는 지름 2cm, 매듭높이 1.8cm, 매듭을 여밀 수 있는 고리길이는 4cm이다. 고름의 크기는 길이 31-34cm, 나비 2cm로 겉에서 박아 넘겼다. 면갑의 두께는 1.5cm이고 낡아서 훼손된 곳이 군데군데 있다.
- 조선시대 말 제작 착용되었던 갑옷의 일종으로 보존상태도 비교적 좋은 이 면갑은 제조에 관한 일화가 문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있고, 1871년 신미양요 때 착용한 사진도 남아있다. 유사한 형태의 면갑이 일본과 미국에 남아있으나 우리나라에 보관된 것은 유일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다. 고종시대에 아직 서구화되지 않은, 우리 고유의 갑옷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격변하는 개항기의 근대군사 관련 복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광복군 군복

< 문화재위원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광복군 군복
- 일명 광복군 예비대 군복이며 광복군들이 입었던 전투복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예비대 완장이 잘 남아있다.
- 우리나라 광복군 복장의 대표적인 유물이며, 현재 국내 유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 문화재명칭(안) : 광복군 군복
- 일명 광복군 예비대 군복으로서 광복군들이 입었던 전투복이다. 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에서는 ‘군인의 각종 표지(標識)제정안’(1945.1.9.)과 ‘군인제복 양식(樣式)제정안’(1945.2.19.)을 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은 1945년 2월에 복식제식(服飾制式)이 정하여 질 때까지는 일정한 제복이 없이 중국식의 군복과 그 표지를 사용했으나, 복식제식이 정해진 후 독자적으로 광복군의 표지와 군복을 사용하거나 착용하였다. 전투장(戰鬪裝)은 전투모에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착용하고 무릎 아래 다리에는 각반(脚頒)을 착용하였으며 정장과 같이 가죽으로 된 어깨띠와 허리띠를 매었다.
- 1972년 서울 시청 내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동년(同年) 육사로 기증되었다.
- 전투모와 전투복의 색상은 황갈색 기미의 녹색(국방색)이며, 전투모의 형태는 원통형으로서 앞면 위쪽을 반달형 모양으로 파이게 하고 파이지 않은 하단부에는 상·하로 나란히 황금색 금속제 단추를 달았다.
- 우리나라 광복군 복장의 대표적인 유물이므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66.

< 문화재전문위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군사사) >

○ 문화재명칭(안) : 광복군 군복

○ 이는 광복군들이 입었던 전투복이다. 1945년 2월 복식제식이 정해지면서 독자적으로 광복군의 표지와 군복을 사용하거나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예비대 완장이 잘 남아 있다. 1972년 서울 시청 내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동년 육사에 기증되었다. 소장경위와 명세가 분명하고 현재 국내 유일의 광복군 군복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 전 문화재위원 ○○○(복식사), 서울여대 조교수 ○○○(한국복식) >

○ 이 군복은 일명 광복군 예비대 군복으로서 광복군들이 입었던 전투복이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충칭(中慶)에서 창설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로 공식명칭은 한국광복군이다. 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에서는 ‘군인의 각종 표지(標識) 제정안’(1945년 1월 9일)과 ‘군인제복 양식(樣式)제정안’(1945년 2월 19일)을 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은 1945년 2월에 복식제식(服飾制式)이 정하여 질 때까지는 일정한 제복이 없이 중국식의 군복과 그 표지를 사용했으나, 복식제식이 정해진 후 독자적으로 광복군의 표지와 군복을 사용하거나 착용하였다. 전투장(戰鬪裝)은 전투모에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착용하고 무릎 아래 다리에는 각반(脚頒)을 착용하였으며 정장과 같이 가죽으로 된 어깨띠와 허리띠를 매었다.

○ 1945년 2월에 공포된 광복군의 복식은 정장(正裝) 전투장(戰鬪裝) 계급장(階級章) 휘장(徽章)으로 나눌 수 있다. 정장과 전투장은 상의의 제식과 같지만 전투모(戰鬪帽)에 면직으로 된 전투복을 입었다. 1972년 서울 시청 내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동년(同年) 육군사관학교로 기증된 이 광복군 군복은 전투복으로 생각된다. 이 유물은 겉감은 카키색의 면직 개버딘인 치노(chino)로 만들었고 안감은 면직(綿織) 용(絨)으로 만들어졌다. 싱글브레스트(single breast)에 앞길 좌우 가슴에는 플랫(flap)이 있는 포켓이 달려있고 하단에도 각각 포켓이 달려있다. 왼쪽 소매에는 어깨에서 13.5cm 내려온 곳에 일등병으로 추정되는 길이 7.5cm 나비 6.5cm의 수장(袖章)이 달려있고, 어깨에도 견장을 달 수 있는 길이 12.5cm 나비 5cm의 장식이 있다. 뒷길에는 길이 15cm의 트임이 있어 활동성이 보장되는 옷이다. 단추는 5개가 달려있다. 칼라는 플랫칼라(flat collar)로 높이는 2cm 나비는 6cm이다. 옷길이는 62cm, 앞뒤폭은 93cm, 소매길이 53cm, 어깨는 13.5cm, 목둘레는 44cm이다. 하의는 상의와 같은 감으로 만들었고, 여밈은 이중 flap으로 단추 4개가 달려있다. 바지길이는 94cm, 밑아래길이 57cm, 허리둘레 98cm, 바지도련 47cm이다. 모자<그림 33>는 약모(略帽)로 전투복보다 좀 더 짙은 색의 울(wool)로 만들었다. 형태는 개리슨 모자(Garrison hat)라고 불리는 형태와는 비슷하나 그렇게 넓지 않은 4.5cm의 챙이 달려있다. 정수리는 납작하고 정면에서 보면 V형의 장식 위에 원형의 무궁화꽃과 잎사귀가 브라운 색으로 수 놓여져 있다.



<그림 33> 광복군 군복 모자



<그림 34> 광복군 완장

<그림 30> 광복군 군복 상의 앞

<그림 31> 광복군 군복 앞

<그림 32> 광복군 군복 뒤



<그림 35> 광복군 군복 상의 실측도



<그림 36> 광복군 군복 하의 실측도

- 현재 육군박물관 소장품 광복군 군복에는 완장(腕章)<그림 34>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 완장은 ‘在中大韓民國臨時政府 光復軍 豫備隊’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이 완장은 광복군 군복과 함께 입수된 것은 아니며 육군박물관에는 몇 점이 더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광복군이 착용했다는 외투도 있다.
- 광복군 군복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광복군 군복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함께 전시되고 있는 완장은 전투복과 일습으로 수습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이다.

5. 병인일기(丙寅日記)

< 문화재위원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양헌수 병인일기(丙寅日記)
- 병인양요(丙寅洋擾) 당시 양헌수(梁憲洙:1816-1888) 장군의 일기로 출전일(出戰日)인 1866년 음력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52일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병인양요 당시에 조선군을 지휘하였던 양헌수 장군의 일기로서 기록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기록물과의 형평성 등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 문화재위원 ○○○(서지학) >

- 문화재명칭(안) 및 수량 : 양헌수 병인일기 1책
- 병인양요에 순무천총(巡撫千摠)으로 참전하여 정족산성(鼎足山城)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양헌수(梁憲洙:1816-1888) 장군의 출전일기(出戰日記)이다. 일기는 제주목사에서 동부승지의 발령을 받아 돌아온 병인년(1866) 9월 3일에서 시작하여 정족산성 전투를 거쳐 동년 10월26일 부총관에 임명되는 기사까지 총 52일간의 일기이다. 그중 9월 22-26일(5일)과, 10월 6일, 11-13일, 16-17일, 22일, 25일 도합 13일은 기사가 없다. 일기의 말미에는 양헌수 장군이 동년 9월11일에 프랑스함대의 제독에게 보낸 격문인 전격양박도주(傳檄洋舶都主) 1편이 실려 있다. 같은 일기가 양헌수의 문집인 하거집(荷居集) 권1에는 토양박도주격(討洋舶都主檄)의 말미에 어용방략(禦戎方略)과 함께 출전일기(出戰日記)의 제목으로 부록되어 있다. 병인일기의 필사상태를 보면 깨끗하게 정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쓴 일기의 원본은 아니고, 초고를 바탕으로 후에 정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일기를 문집본과 비교해 보면 병인일기에 빠진 날짜의 일기가 문집본의 출전일기에는 기록되는 등 상략의 차이가 있는 점에서 문집본은 병인일기보다 뒤에 추기(追記)하여 완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 병인일기는 병인양요에 출전하여 전승을 거둔 양헌수장군의 일기로서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거둔 전투과정을 알려주는 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기의 원본이 아닌 전사본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병인일기에는 저자의 문집인 「하거집(荷居集)」에 수록된 출전일기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1차로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존을 권고하는 것이 적의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저자 양헌수는 한말의 거유(巨儒)로 반외세운동인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을 이끈 대표적 학자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1792 -1868)의 문인으로 자는 경보(敬甫).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1848년(헌종 14)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참상관(參上官)을 지냈고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낼 때에는 선정을 폈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정족산성(鼎足山城) 수성장(守城將)으로서 큰 공을 세웠고, 한성부좌윤·황해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873년 어영대장, 1874년 좌변포도대장, 1875년 금위대장을 거쳐 1876년 강화도조약 당시에는 끝까지 척화론을 주장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뒤에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에 임명되었고 1884년에는 공조판서가 되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 문화재명칭(안) : 병인일기(丙寅日記)
- 병인양요 당시 양헌수(梁憲洙:1816-1888) 장군이 진중에서 직접 기록한 일기이다.
-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가 10월 16일 강화부를 점령하자, 위급함을 느낀 조정이 같은 날인 10월 16일 순무영(巡撫營)을 설치, 대장에 이경하, 중군에 이윽희, 천총(千摠)에 양헌수를 임명해 강화도로 출정하게 하였다. 제주목사로 있다가 1866년 9월 3일부터 승정원 동부승지로 근무 중 천총에 임명된 양헌수는 통진

부에 진을 치고 강화도 수복 계획을 구상하였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10월 26일에 문수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을 압도하였다. 프랑스군의 총포 화력을 당해낼 수 없어 강화도의 관리·군인·백성이 모두 피난을 갖기에 강화도는 프랑스군의 독무대가 되었다. 이 때 양헌수는 군을 이끌고 비밀리에 강화해협을 건넜다. 11월 7일(음력 10월 1일) 프랑스 군대가 눈치 채지 못한 가운데 정족산성에 들어갔다. 11월 9일(음력 10월 3일) 프랑스군 올리비에가 160명의 분견대를 이끌고, 야포 없이 경무장한 채 정족산성 공략에 나서자, 양헌수는 일제히 포격을 가하였다. 프랑스군은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60~70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 1명, 부상자 4명뿐이었다. 프랑스군은 11월 10일 퇴각 준비를 하고 11월 11일 새벽 함대를 철수하였다. 정족산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구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격퇴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 병인일기는 출전일(出戰日)인 1866년 음력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52일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양헌수 장군의 5대 종손 양승태 씨가 가문에서 약 120년간 보관해오다가 전쟁기념관에 기증한 양헌수장군 일괄 유물 102점 중의 하나이다.
-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군을 격퇴한 양헌수 장군의 진중일기로, 병인양요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 문화재전문위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군사사) >

- 문화재명칭(안) : 병인일기
- 병인양요 당시 양헌수 장군의 일기이며 출전일 1866년 음력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52일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양헌수 장군의 5대 종손 양승태가 가문에서 보관해 오던 다른 유품 총102점과 함께 기증한 것이다. 이 일기를 통해 외교문서 ‘전격양박도주(傳檄洋舶都主)’가 양헌수 장군이 쓴 것임이 처음 밝혀지기도 했다. 병인양요의 대표적인 기록이며 임진왜관의 난중일기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 종손이 다른 유품과 함께 기증한 것으로 소장경위와 명세가 분명하며 병인양요에 관한 학술자료로서도 가치가 크다.

6. 대한민국 육군기

< 문화재위원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육군기(陸軍旗)
- 1946년 4월 새로 제정된 육군 모표(帽標)를 표상으로 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육군기이다.
-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육군기라고 주장되지만 같은 종류의 유물이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유물에 대한 명세가 정확하지 않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 문화재명칭(안) : 대한민국 육군기(陸軍旗)
- 1946년 4월 새로 제정된 육군 모표(帽標) 장교용 자수제(刺繡製)를 표상으로 한 대

한민국 초기 육군기이다. 모표는 무궁화 꽃을 중앙에 두고 무궁화 잎을 하단에서 상단으로 두른 후 하단 중앙에 매듭을 맺은 형태였다. 이렇게 제정된 육군 모표를 암청색의 직사각형 바탕 위에 새겨 넣었다. 중앙의 태극과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애국심을 표현한다. 무궁화 외부의 사슬원은 군의 굳은 결속을 표현하며, 무궁화 잎과 꽃봉오리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나비형 매듭은 민(民)·관(官)·군(軍)의 굳건한 결속을 표현한다.

-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육군기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대한민국 육군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초기 육군기의 유일본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육군을 대표하는 유물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 문화재전문위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군사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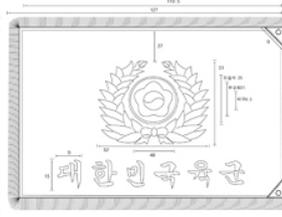
- 문화재명칭(안) :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기
- 1946년 4월 새로 제정된 육군 모표를 표상으로 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육군기이다. 1946년 1월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군복은 비록 일본군 군복을 착용하였으나 모표만은 우리 것을 새로 제정하여 만들었다. 모표는 무궁화 꽃을 중앙에 두고 무궁화 잎을 하단에서 상단으로 두른 매듭 모양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무궁화 매듭모양의 이 육군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육군기이며 공비토벌작전,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육군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역사적인 의미가 큰 유물이다. 6.25전쟁 60주년의 현시점에서 이 육군기는 현재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6.25전쟁 군사유물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전 문화재위원 ○○○(복식사), 서울여대 조교수 ○○○(한국복식) >

- 1946년 4월 새로 제정된 육군 모표(帽標)를 표상으로 한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육군기이다. 1946년 1월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군복은 비록 일본군 군복을 착용하였으나 모표만은 우리의 것을 제정 부착하였는데 그 모양은 무궁화 꽃을 중앙에 두고 무궁화 잎을 하단에서 상단으로 두른 후 하단 중앙에 나비모양의 매듭을 맺은 형태였다.
- 이렇게 제정된 육군 모표의 문양을 응용한 육군 군기<그림 37, 38>는 1948년 제작되었는데, 암청색의 직사각형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바탕 위에 실크 프린팅이 되어 있다. 주변에는 금색 술<그림 39>이 약 6.5cm의 길이로 달려있는 것을 포함하여 기의 크기는 가로 127cm 세로 98.5cm이다. 상하에 밑변 9cm 높이 5cm의 삼각형에 1.5cm 지름의 쇠로 된 구멍<그림 40>이 있어 군기를 깃봉에 쥘 수 있다. 육군군기의 중앙에는 태극과 무궁화 그리고 리본형의 앞사귀를 배치하였고 그 아래 ‘대한민국육군’이라는 글씨가 있다. 태극은 9.5cm, 무궁화는 21cm, 이를 둘러싸고 있는 원둘레는 25cm이며 그 바깥에 있는 리본형의 앞사귀는 51cm이다. 글씨의 크기는 각각 가로 15cm 세로 9cm이다. 현재 깃발의 상부에는 약 60cm의 노란색 끈이, 하부에는 72cm 정도의 카키색 끈이 묶여져 있으며, 육군기는 햇빛에 바래 부분 부분 탈색이 된 세월의 흔적이 있는 상태이다. 육군기에 인화염으로 새겨진 문양의 뜻은 중앙의 태극과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애국심을 표현한다. 무궁화 외부의 사슬원은 군의 굳은 결속을 표현하며, 무궁화 잎과 꽃봉오리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나비형 매듭은 민(民)·관(官)·군(軍)의 굳건

한 결속을 표현한다.

-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육군기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유일본이며 1948년에 제작된 점을 고려할 때, 건군 6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육군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유물로서 대한민국의 기상과 위상을 더 높이고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



<그림 37> 대한민국육군기

<그림 38> 대한민국육군기 실측도

<그림 39> 세부 솔

<그림 40> 세부 고리

7. 백두산함(PC-701) 마스트

< 문화재위원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백두산함 마스트

- 해군 장병의 헌금으로 1949.10.17. 미국에서 구입한 후 1959년 7월 퇴역한 우리해군의 첫 전투함의 마스트로 이 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서대서양에 투입되어 해상 공중의 구조임무에 사용되었었다.

-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마스트로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 문화재명칭(안) : 백두산함(PC-701) 마스트

- 백두산함은 해군 장병의 헌금으로 1949.10.17. 미국에서 구입한 한국 해군의 첫 전투함이다. 미국의 PC-461급 구잠함(驅潛艦)이며, 원래 함명은 USS PC-823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서대서양에 투입되어 해상 공중의 구조임무에 사용되었다. 함포를 갖춘 600톤급 구 미국 해군 구잠함 USS PC-823을 6만 달러에 구입하여 백두산함(PC 701)이라 명명하였다.

- 6.25전쟁 발발 당일 1950.6.25. 대한해협 근해에서 병력 600여명과 탄약·식량 등을 실은 북한 인민군의 무장수송선을 발견하여 추적, 1950.6.26. 격침시켰다. 6.25전쟁 중 최초의 해상전투였던 대한 해협 해전의 승리는 북한의 후방기습 상륙을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959년 7월 퇴역한 백두산함의 공훈을 기념하기 위해 1966년 마스트를 해군사관학교에 세웠다. 백두산함 마스트는 목재로 제작하였으며 마스트 상단에는 항해등(航海燈)과 기류(旗類)를 달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2009년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마스트로서, 해군 장병 및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한국 해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군 역사상 중요한 유물이며, 이력이 정확하므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 문화재전문위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군사사) >

- 문화재명칭(안) : 백두산함 돛대
- 백두산함은 해군 장병의 헌금으로 1949.10.17. 미국에서 구입한 우리 해군의 최초의 전투함이다. 미국 구잠함이며 미 해군으로부터 6만 달러에 구입하여 백두산함이라 명명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한 1950.6.25. 당일 백두산함은 대한해협 근해에서 병력 600여명과 탄약 등을 가득 실은 북한군 게릴라를 사살하고 무장수송선을 격침시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다. 이후 전쟁기간 다양한 작전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이후 백두산함은 1959년 7월에 퇴역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돛대(마스트)를 해군사관학교에 세워 사관생도들에게 백두산함의 역할을 교육하고 있다.

8. 휴전협정 조인(調印) 시 사용된 책상

< 문화재위원 ○○○(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휴전협정 조인(調印) 책상
- 1953.7.27.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조인할 당시, 미국측 대표인 마크 클라크(Mark C. Clark) 유엔군 사령관이 사용한 책상이다.
- 6.25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조인 당시 사용되었던 유물이었다는 점에서 등록할 가치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 문화재명칭(안) : 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시 유엔군 측 서명시 사용한 책상
- 1953.7.27. 체결된 6.25전쟁 휴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Mark C. Clark) 대장이 휴전협정문에 서명할 때 사용한 책상이다.
- 1953.7.27. 체결된 휴전 협정식은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쌍방 회담 수석대표인 유엔군의 해리슨제독과 조선인민군의 남일 중장이 협정문에 서명하고, 남일은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평덕화이(彭德懷)의 서명을 받았고, 해리슨 제독은 문산 극장에 대기 중인 클라크 대장에게 가서 서명을 받았다. 클라크 대장은 유엔군 참전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휴전협정은 발효되어 이날 22시를 기하여 약속에 따라 쌍방 간의 전투는 종료되었다.
- 본 유물은 휴전회담 쌍방 대표가 서명한 책상은 아니지만, 클라크 대장이 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휴전협정이 발효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휴전협정 당시 사용된 비품이었다는 점에서 등록하는 것이 좋다.

< 문화재전문위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군사사) >

- 문화재명칭(안) : 휴전협정 조인 책상
- 1953.7.27.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조인할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서명을 위해 사용한 책상이다. 클라크 사령관은 문산극장에서 유엔군 각국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때 사용된 책상은 6.25전쟁 유물로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현재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휴전협정은 이어 북한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덕화이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었다.

2. 등록 제6호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명칭 변경 심의

가. 제안사항

명칭변경 예고기간이 만료된 등록문화재 제6호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에 대한 문화재 명칭변경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북 청주시장이 등록 제6호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을 「청주대성고등학교(구 청주상고) 본관」으로 명칭 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2010년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10.4.1)에서 가결되었음.
- 이에 따라 관보에 공고('10.4.15~5.14)하고 소유자 및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이 없어 금번 위원회에 부의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북 청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등록 제6호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261 외 2필지
 - 등록일 : 2002년 2월 28일
 - 수량 및 규모 : 1동, 연면적 1,566.3m²
 - 현황
 - 청주상업고등학교는 청주지역에서 지방 사학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적벽돌 2층의 본 건물은 청주지역에서 적벽돌의 생산 및 축조기술을 본격적으로 보급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건축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건축의 백미임.
- (3) 변경 사유
 - 등록 제6호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02.02.28. 등록)은 등록 당시에 '청주대성고등학교'의 구 명칭인 '청주상업고등학교 본관'의 의미로 '구 본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본 건물은 현재도 '청주대성고등학교 본관' 건물

로 사용하고 있어 명칭 변경하고자 함.

라. 근대문화재과 의견

- 등록 제6호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은 등록('02.02.28) 당시 현 청주대성고등학교의 전신인 청주상업고등학교 본관으로서 의미를 갖고 명명되었으나, 현재 청주상업고등학교의 후신인 청주대성고등학교 본관으로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기준'에 현재의 건축물 고유명칭이 과거와 다를 경우에는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며, 다만 현재의 명칭이 문화재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명칭을 쓰거나 이를 같이 나란히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명칭 부여 기준에 부합하면서, 건물의 특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원안대로 명칭변경함.
- 출석 7명, 찬성 7명

3. 사적 제497호 「이화장」 보호구역 추가지정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497호 「이화장」의 보존관리를 위해 담장 내·외에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 3-2번지 외 1건을 보호구역 추가지정 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화장 담장 내·외에 걸쳐 위치한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이화동 3-2번지, 747.1㎡ 중 314.9㎡) 및 기획재정부에서 문화재청으로 관리전환 완료(2009.11.24)된 3-1(대)번지 236.4㎡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2010. 4. 1) 검토 결과 가결되었음.
- 관보에 공고('10.4.14~5.13) 결과 반대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이화장(사적 제49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 등
- (3) 신청내용 : 이화장 보호구역 추가지정

소재지	지목	도시계획	추가지정 대상(㎡)	관리청
종로구 이화동 3-2	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공지	747.1 중 314.9	국토해양부
종로구 이화동 3-1	대지	-	236.4	문화재청

- (4) 심의사항 : 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심의
- (5) 참고사항
 - 이화장 사적 지적별 면적 : 6필지 6,019.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재 면적	보호구역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계				6,019.7	4,799.1	1,220.6		
1	종로구 이화동	1	대	1,332.2	1,332.2	0	서울 종로구 이화동 1	○○○
2	"	1-1	대	846.3	846.3	0	"	○○○
3	"	1-2	대	1,332.2	1,332.2	0	"	○○○
4	"	2-1	대	2,128.9	1,100	1,028.9	"	○○○
5	"	2-2	대	191.7	0	191.7	"	○○○
6	"	2-3	대	188.4	188.4	0	"	○○○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03.26)>

-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 이화장(梨花莊)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李承晩 : 1875.3.26~1965.7.19)이 1947년 10월 18일부터 1948년 8월 12일까지, 그리고 4·19 혁명으로 하야(下野)한 직후인 1960년 4월 28일부터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는 1960년 5월 29일까지 거주한 사저(私邸)임.
 - 광복 이후~정부 수립 전까지는 김구의 경교장(京橋莊)·김규식의 삼청장(三清莊·멸실) 등 당시 정세를 이끌어가던 세 구심점 가운데 하나였으며 대한민국이 헌법상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활동했던 경교장(京橋莊)과 함께 이화장은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조각본부(組閣本部)가 구성 및 운영된 곳임.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의 산실 역할을 한 곳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1930년대 한옥의 변천양식을 잘 보여주는 본채·조각당 등 주요 건물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음.
 - 이에 이화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담장 내외에 걸쳐 위치한 국유지(문화재청으로 관리전환 완료된 3-1(대)번지 236.4㎡, 국토해양부 3-2(도) 747.1㎡ 중 314.9㎡)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필요함.

<근대문화재과>

- 예고내용대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원안대로 추가 지정함.
- 출석 7명, 찬성 7명

4. 사적 제157호 「환구단」 주변 옥상광고물 설치 현상변경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환구단」 주변 옥상광고판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주)재능교육 빌딩 옥상에 광고판(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재능교육(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19)
- (2) 대상문화재명 : 환구단(사적 제157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14
- (3) 신청내용 : 옥상광고판 설치
 - 위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옥상
 - 내용 : 정면 14m×8m(LED 전광판) 광고탑 설치

구분	원안('10.3.26)	변경안('10.5.25)	비고
규격	정면 22m×2.2m×11m 우측면 19m×2.2m×11m	정면 14m×8m	

- (4) 심의사항 : 옥상광고판 설치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5.12)>

-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근대건축사), ○○○(조경계획)
 - 철골구조물 설치 시 환구단 쪽에서 보는 시뮬레이션의 자료 제출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구조 안전 자료 제출
 - 옥상 광고판 구조물의 차폐를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 자료 제출
 - 물탱크를 가리는 용도의 휨스 설치는 바람직함. LED광고판 조도와 시청 앞 광장과 영향검토 자료 제출 필요

마. 심의결과 : 보류

- 현상변경 심의를 보류함
 - 안전진단, 영향검토, 광고방식의 주변환경조화 방안 등 신중한 검토
- 출석 7명, 찬성 6명, 반대 1명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근대2010-03-005

5. 「엄복동 자전거」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개인 소장의 「엄복동 자전거」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일제시대 스포츠 영웅 엄복동 선수가 탄 것으로 전해지는 「엄복동 자전거」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엄복동 자전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
 - 수량 : 1대
 - 제작년도 : 1910년대(특히 1910년~1914년) 추정
 - 규격 : 길이 1685mm × 높이 900mm
 - 제작사 : 러쥐社(Rudge-Whitworth, 영국 Coventry 소재)
 - 소유자 :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 검토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3.15) >

- ○○○ 문화재위원(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실제로 1920년대 엄복동이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제작연대나 품질, 희귀성 등으로 볼 때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다만 그럴 경우 ‘엄복동 자전거’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 ○○○ 문화재전문위원회(KAIST 교수, 과학기술사)
 - 일제강점기 ‘자전거 영웅 엄복동’의 것으로 추정되며, 그런 경우 자전거라는 현대 기술적, 스포츠적 가치를 뛰어 넘어 한국사적 가치를 획득하게 될 것임.
 - 자전거의 소유주를 비롯한 한국 사이클계는 이를 엄복동 소유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 자전거의 특징이 신문자료에 남아 있는 엄복동 자전거의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자전거가 엄복동 자전거일 가능성이 있음.
- ○○○ 한국체육대학교 부교수(사이클)
 - 일제강점기 자전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크게 일깨워준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영웅이었던 엄복동 선수가 탔던 것으로 김근우가 박성렬(1919~2002)의 미망인 김경순으로부터 2003년에 소유권을 이양 받아 소장하고 있음.
 - 엄복동은 1892년 서울에서 태어나 자전거 판매점(일미상회)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전거 경기활동을 시작하여 1910년 전조선자전거대회에 출전하여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함. 이후 1929년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월등한 기량을 펼치며 일본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당시 최고의 민족적 영웅이었음.
 - 이 자전거는 엄복동, 조수만, 박성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조수만은 엄복동의 후배로 엄복동에 버금가는 훌륭한 경기력을 가진 선수였으며, 조수만은 박성렬의 형과 친구간임. 박성렬은 엄복동보다 27세나 아래이기 때문에 엄복동과 함께 자전거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박성렬, 황산웅(1924년생, 사이클 원로) 등 경기력이 우수한 후배 선수에게 각별한 애정과 친분을 유지하며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곤 하였음(황산웅 전화면담, 2010.4.7.).
 - 일반적으로 자전거 부품에서 차체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소모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차체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원형을 간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자전거도 사용과정에서 림, 타이어, 핸들, 핸들스텝, 페달, 토우 크립과 밴드, 안장, 안장 포스트는 교체된 것으로 보이나 차체, 크랭크, 뒷기어, 체인이 원래의 부품 그대로이므로 원형을 잘 간직한 것으로 평가됨.
 - 크랭크의 손 모양 디자인과 엠블럼의 시리얼번호 등으로 미루어보아 특별 제작된 경기용 자전거로 제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 스포츠 유

산이며, 우리나라 근대스포츠 유물로 가치가 매우 큼.

라. 근대문화재과 의견

- 위 자전거는 일제시대 스포츠 영웅 엄복동 선수가 탄 것으로 전해지는 사 이클로 체육사적·상징적 가치가 큰 유물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단, 명칭에 있어서는 ‘엄복동 자전거’(1안) 또는 ‘근대 경주용 자전거’(2안)로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결과 : 원안가결

- 문화재 등록예고함.
 - 명칭은 ‘엄복동 자전거’로 함.
- 출석 7명, 찬성 7명

- 붙임 1. 조사보고서('10.3.15) 1부
2. 엄복동 자전거 관련 신문기사 1부.

< 붙임 1 >

엄복동 자전거 조사보고서

1. 명칭(안) : (1안)‘엄복동 자전거’ 또는 (2안)‘근대 경주용 자전거’
2. 용 도 : 전시용(현), 경주용(원)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23-1 ○○○
4. 소유자 :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현 소유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23-1 ○○○
5. 대상물 개요
 - 수 량 : 자전거 1대
 - 제작사 : 러쥐社(Rudge-Whitworth, 영국 Coventry 소재)
 - 1870년 러쥐社 설립
 - 1894년 위트울스사와 합작. 이후 영국에서 활발히 자전거 제작·판매
 - 1935년 레코드회사 EMI에 합병되며 모터사이클 제조 시작
 - 1940년대 자전거 제작 중지
 - 제작년도 : 1910년대(특히 1910년~1914년) 추정
 - 규격 : 길이 1685mm × 높이 900mm
 - 자전거 연혁
 - 1910~1914년 영국 러쥐社 제작
 - 1910년대~1930년대 엄복동이 자전거 사용
 - 1930년대 이후 엄복동이 조수만(사이클선수)에게 자전거 양도, 조수만이 사용
→ 김양수 선수 → 서정준 선수
 - 광복 직후 박성렬(사이클선수)의 형이 500원에 구입하여 동생에게 줌
 - 1946년 당시 소유자 박성렬 ‘이북5도사이클선수권대회’ 우승
 - 1947년 박성렬은 1·4후퇴 때 자전거를 분해하여 월남
 - 2003년 박성렬 작고(2002년) 후 부인 김경순이 ○○○에게 소유권 이양
6. 주요특징
 - 제작년도 추정 : 1910년대(특히 1910년~1914년)
 - 구전 내용(소유자) : 1920년 전후 러쥐사가 동양지역 판촉을 위해 중국 상해와 일본에 보낸 2대 중 하나
 - 추정 근거(영국 국립자전거박물관 확인)
 - 러쥐社 엠블럼(손바닥 모양)은 1910년부터 사용(동 자전거에 엠블럼 있음)
 - 1920년 이전에는 15.9mm 간격 가진 기어 사용, 이후에는 12.7mm 사용(동 자전거는 15.9mm)
 - 영국의 자전거 회사는 1914년까지 활발히 제작하다 제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참전한 1914년 8월 이후부터 1919년까지 군수물품 생산에 집중

○ 러취社 엠블럼 및 7자리 숫자

- 러취社 엠블럼이 차축 전면과 기어 부분에 새겨짐
- 차축 전면 엠블럼에 7자리 숫자(1065274) 새겨짐
 - 7자리 숫자는 라이선스 번호 또는 해외 수출용 번호 가능성(영국 국립자전거박물관 확인)



임복동 자전거 엠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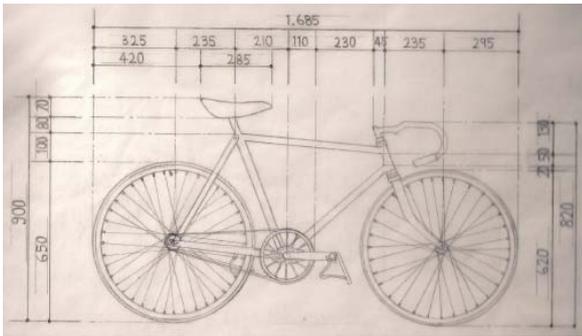


1920-30년대 러취사 엠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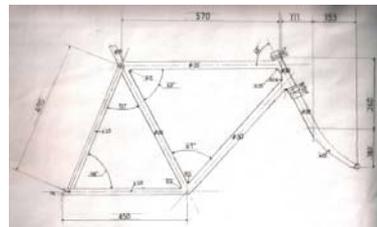


1925년 러취사 한정 제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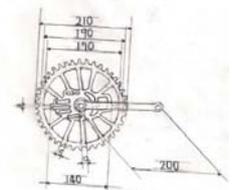
○ 실측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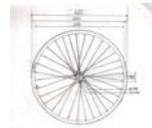
임복동 자전거 측면도



부분도-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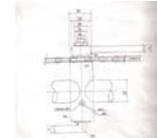
부분도-기어



부분도-앞바퀴



부분도-뒷바퀴



부분도-기어 상면도

- 원형 유지 부속품 : 차체, 크랭크, 뒷 기어, 체인
- 교체된 부속품 : 림(추정), 타이어, 핸들, 핸들스텝, 페달, 토우 크립과 밴드, 안장, 안장 포스트

7. 임복동 자전거 실 사용증거

○ 실제 사용 신문기사



신문광고(매일신보 1913.4.17)

러취 자전거 탄 임복동이 자전거경주대회에서 1등 한 것을 광고문구로 사용



1980년대 신문기사

○ 우리나라 사이클계 원로 증언

성명	직위	실사용 여부	의견
○○○	엄복동 자전거 소유자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 엄복동이 사용한 자전거가 확실 - 엄복동이 사용하다가 후계자 조수만에게 주었고 조수만도 이 자전거를 실제 사용하였다고 박성렬에게 들음
○○○	한국사이클원로회 부회장	○	- 일부부품은 아닐 수 있지만 자전거는 엄복동 자전거일 것 - 엄복동 뿐 아니라 조수만도 함께 사용함 - 엄복동 자전거는 한국 사이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임
○○○	한국사이클연맹 전무이사	○	- 한국 사이클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엄복동이 이 자전거를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음
○○○	사이클 원로 (1924년생)	○	- 엄복동은 나와 박성렬 등 경기력이 우수한 후배 선수에게 각별한 애정과 친분을 유지하며 조언과 격려를 해주곤 하였음

○ 옛 신문기사 사진 비교(헨들은 교체됨)



현 엄복동 자전거



신문기사(매일신보 1922.5.23)



신문기사(시대일보 1924.10.25)

8. 인물 소개

○ 엄복동(嚴福童, 1892~1951)

- 일제시대에 사이클 선수로 명성을 날리던 스포츠 영웅
- 자전거 판매상인 일미상회(정식명칭 : 일미상점경성지점, 을지로 소재)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중, 1913년 4월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가 인천(12일)·용산(13일)·평양(27일) 등에서 공동주최한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에서 우승하였다. 특히, 27일 평양 역전광장에서 한국인 2명과 일본인 4명으로 실시된 조·일일류선수 연합경기에서는 엄복동과 황수복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당시 일제하에서 국민들의 환호와 감격이 절정에 달하였다. 그 뒤 1922.5.31부터 2일간 평양 윤업회(輪業會) 주최로 광성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에서

도 일본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초까지 선수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말년에 극히 불우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이후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 부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한국전쟁 당시 동두천 부근의 어느 야산에서 비행기 폭격으로 숨졌다.

- 엄복동은 비록 자전거 경기라는 제한된 부분이었지만, 국권상실기의 암울한 시대에 민족적 일체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국민적 영웅이라는 칭송까지 받게 되었다. 당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안창남, 땅에 엄복동’이란 유행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9. 엄복동 관련 신문기사 목록(사진 수록, 붙임 참조)

- 매일신보 1913.4.17
- 매일신보 1917.6.1
- 매일신보 1921.11.8
- 매일신보 1922.5.23
- 시대일보 1924.10.25
- 동아일보 1983.8.11

10. 조사자 의견(‘10.3.15)

< ○○○ 문화재위원(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엄복동 자전거’ 또는 ‘1920년대 고자전거’
- 영국 Rudge-Whitworth 자전거회사가 특수 제작하여 1920년 전후 중국 상해와 일본에 보낸 2대 중의 하나로 추정되며, 국내의 고자전거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 엄복동이 1930년대 이후 후계자 조수만에게 양도하고 이후 박성렬, 김근우 등 국내 사이클계 인사들로 전해졌다는 상세한 내력이 전해지고 있고, 사이클계에서는 실제로 엄복동이 사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목재 바퀴틀, 본체의 파랑색 도색 등은 원래의 것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 실제로 1920년대 엄복동이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제작연대나 품질, 희귀성 등으로 볼 때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 다만 그럴 경우 ‘엄복동 자전거’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문화재전문위원(KAIST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근대 유물 자전거
- 주요특징
 - 1910년대 영국 러쥐(Rudge) 회사 제품

- 자전거 전면에 양각된 손바닥 모양의 엠블럼과 시리얼 번호(1065274)
- 휠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음
- 의미와 가치
 - 현재까지 알려진 근대 자전거 유물 중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일제강점기 ‘자전거 영웅 엄복동’의 것으로 추정되며, 그런 경우 자전거라는 현대 기술적, 스포츠적 가치를 뛰어 넘어 한국사적 가치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 ‘엄복동 자전거’ 사실 여부
 - 유물의 전송 기록 : 자전거의 소유주를 비롯한 한국 사이클계는 이를 엄복동 소유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엄복동이 사용하다가 후계자인 조수만에게 주었고, 조수만이 이 자전거를 사용하다 박성렬에게 전해주었고, 그것이 김근우에게 이어졌다고 한다.
 - 각종 신문 기록을 보면, 해방 이후에는 이러한 전송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해방 이전의 경우에는 이 자전거가 엄복동 소유의 자전거였다는 확실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 단, 이 자전거의 특징이 신문자료 등에 남아 있는 엄복동 자전거의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전거가 엄복동 자전거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 신문에 나타난 ‘엄복동 자전거’의 특징
 - 매일신보 1913.4.17일자 : 러취 회사에서 엄복동이 자사 자전거를 탔다는 사실을 광고함
 - 매일신보 1922.5.23일자 : 매우 선명한 손바닥 모양의 엠블럼. 대상물과 매우 유사한 모습
 - 시대일보 1924.10.25일자 : 매우 선명한 손바닥 모양의 엠블럼. 대상물과 매우 유사한 모습

< ○○○ 한국체육대학교 부교수(사이클) >

- 문화재 명칭(안) : 엄복동 자전거
- 이 자전거는 일제강점기 자전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크게 일깨워준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영웅이었던 엄복동 선수가 탔던 것으로 김근우가 박성렬(1919~2002)의 미망인 김경순으로부터 2003년에 소유권을 이양 받아 소장하고 있다.
- 엄복동은 1892년 서울에서 태어나 자전거 판매점(일미상회)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전거 경기활동을 시작하였다. 1910년 전조선자전거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후 1929년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월등한 기량을 펼치며 일본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당시 최고의 민족적 영웅이었다.
- 이 자전거는 엄복동, 조수만, 박성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조수만은 엄복동의 후배로 엄복동에 버금가는 훌륭한 경기력을 가진 선수였으며, 조수만은 박성렬의 형과 친구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성렬은 엄복동보다 27세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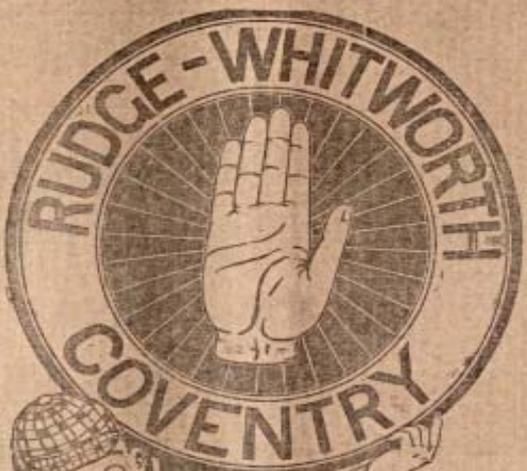
레이기 때문에 엄복동과 함께 자전거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엄복동은 박성렬, 황산웅(1924년생, 사이클 원로) 등 경기력이 우수한 이들 후배 선수에게 각별한 애정과 친분을 유지하며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곤 하였다 (황산웅 전화면담, 2010.4.7.).

- 일반적으로 자전거 부품에서 차체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소모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차체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원형을 간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자전거도 사용과정에서 림(추정), 타이어, 핸들, 핸들스텝, 페달, 토크 크립과 밴드, 안장, 안장 포스트는 교체된 것으로 보이나 차체, 크랭크, 뒷 기어, 체인이 원래의 부품 그대로이므로 원형을 잘 간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자전거는 영국의 자전거 회사인 러쥐(Rudge)사에서 1910~1914년 사이에 제작한 것이다. 크랭크의 손 모양 디자인과 엠블럼의 시리얼번호 등으로 미루어보아 특별 제작된 경기용 자전거로 제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 스포츠 유산이며, 우리나라 근대스포츠 유물로 가치가 매우 크다.

< 붙임 2 >

엄복동 관련 신문기사(사진 수록 중심)

○ 매일신보 1913.4.17 광고



RUDGE-WHITWORTH
COVENTRY

連戰連勝

四月十三日 仁川萬石洞埋葬地。京城日報社主催。朝鮮聯合春季自轉車競走大會。全道代表の車輻。會集。全鮮。各代表撰手。多數參加。峽秀卓絶。手標自轉車。此間。介在。戰。意氣。既。詳輪。壓。氣概。有。宜哉。調輪一過。優勝。月桂冠。獨占。

朝鮮一流聯合選手責任競走(拾哩)京城仁川捷連者
 第一著 京城 嚴福同君 承用
 第二著 京城 原田益成君 乘用
 仁川本町三丁目 電長七五番

朝鮮總代理店 共榮社自轉車部
 京城特約店 瀧川銃砲自轉車店

連戰連勝

機構。精妙。威力。絶倫。向。敵。手。擊破。無。最近決戰。結果。大略下記。如。

三月廿七日 京城聯合選手責任競走大會
 三月十日 京城聯合選手責任競走大會
 三月廿一日 京城聯合選手責任競走大會
 四月六日 京城聯合選手責任競走大會

第一著 葛城重太郎
 第二著 原田益成君
 第三著 嚴福同君
 第四著 原田益成君
 第五著 嚴福同君
 第六著 原田益成君
 第七著 嚴福同君
 第八著 原田益成君
 第九著 嚴福同君
 第十著 原田益成君

第一著 木浦
 第二著 村上撰手
 第三著 山崎英一
 第四著 原山貞成
 第五著 山崎英一
 第六著 村上撰手
 第七著 山崎英一
 第八著 原山貞成
 第九著 山崎英一
 第十著 村上撰手

朝鮮各地 特約代理店

井上自轉車店
 井上自轉車店
 井上自轉車店
 井上自轉車店
 井上自轉車店
 井上自轉車店
 井上自轉車店
 井上自轉車店
 井上自轉車店
 井上自轉車店



榮華의失意가極度

榮華의失意가極度... 榮華의失意가極度... 榮華의失意가極度...

白虫湧出

白虫湧出... 白虫湧出...

金融組合燒失

金融組合燒失... 金融組合燒失...

淳昌火災

淳昌火災... 淳昌火災...

警官風打

警官風打... 警官風打...

無關他人家題產進走

無關他人家題產進走... 無關他人家題產進走...

紙幣偽造

紙幣偽造... 紙幣偽造...

西鮮徵發

西鮮徵發... 西鮮徵發...

壯快競技—珍奇餘興

壯快競技—珍奇餘興... 壯快競技—珍奇餘興...

平飼棄兒

平飼棄兒... 平飼棄兒...

大豹統殺

大豹統殺... 大豹統殺...

漁車慘死

漁車慘死... 漁車慘死...

選者種採用

選者種採用... 選者種採用...

紙幣偽造

紙幣偽造... 紙幣偽造...

西鮮徵發

西鮮徵發... 西鮮徵發...

壯快競技—珍奇餘興

壯快競技—珍奇餘興... 壯快競技—珍奇餘興...

全鮮自轉車大會... 薰風... 六月三日(日曜日)訓練院... 各選手之既訓練習熱中... 全鮮之優勝者之果誰乎

全鮮自轉車大會... 壯快競技—珍奇餘興... 六十個世界列五... 壯快競技—珍奇餘興... 壯快競技—珍奇餘興...

壯筋骨 補氣血 大力丸... 衛生... 諸公... 壯筋骨... 補氣血... 大力丸...

孔聖遺訓講話... 應症... 金銀... 孔聖遺訓講話... 孔聖遺訓講話...

友助堂... 下 貴... 友助堂... 友助堂... 友助堂...

壯筋骨 補氣血 大力丸... 衛生... 諸公... 壯筋骨... 補氣血... 大力丸...



優勝嚴福童君

○ 本報前次開辦以來中外僑胞踴躍贊助...

南浦大運動會

南浦大運動會...

寧遠降雪

寧遠降雪...

定員超過時之抽籤

定員超過時之抽籤...

參加者

參加者...

救國飛行團員

救國飛行團員...

每日軍事事故

每日軍事事故...

不長者千金錄

不長者千金錄...

橫死者廿八名

橫死者廿八名...

面長威粉怪漢

面長威粉怪漢...

火星與地球之接近

火星與地球之接近...

公衆運動場

公衆運動場...

男女名歌華

男女名歌華...

短期郵便局 確實 出賣債公 安全 五月二十一日

最新式流行洋靴 專尚而 平利洋靴店

尺牘大減 寶發所 博文書館

緊用蚊帳雜貨 南昌商店

英語講義錄

時代日報

本報地址：朝鮮京城內南門外... 電話：... 廣告費：...

培花女校의 軌跡

培花女校의 軌跡... 培花女校의 歷史... 培花女校의 教育... 培花女校의 發展... 培花女校의 貢獻...

三湖農成校의 黨爭

三湖農成校의 黨爭... 三湖農成校의 內部... 三湖農成校의 紛爭... 三湖農成校의 結果...

監禁까지

監禁까지... 監禁까지의 經過... 監禁까지의 理由... 監禁까지의 結果...

普校準備金의 積額

普校準備金의 積額... 普校準備金의 增加... 普校準備金의 用途... 普校準備金의 意義...

黑衣同盟

黑衣同盟... 黑衣同盟의 組織... 黑衣同盟의 活動... 黑衣同盟의 影響...

閔氏破産

閔氏破産... 閔氏破産의 經過... 閔氏破産의 理由... 閔氏破産의 結果...



某君의 田舎의 風景

幼兒暴行差押

幼兒暴行差押... 幼兒暴行差押의 經過... 幼兒暴行差押의 理由... 幼兒暴行差押의 結果...

腹中雙胎 急墮落

腹中雙胎 急墮落... 腹中雙胎 急墮落의 經過... 腹中雙胎 急墮落의 理由... 腹中雙胎 急墮落의 結果...

警官被毆

警官被毆... 警官被毆의 經過... 警官被毆의 理由... 警官被毆의 結果...

東京強震

東京強震... 東京強震의 經過... 東京強震의 理由... 東京強震의 結果...

車掌暴行

車掌暴行... 車掌暴行의 經過... 車掌暴行의 理由... 車掌暴行의 結果...

二名逮捕

二名逮捕... 二名逮捕의 經過... 二名逮捕의 理由... 二名逮捕의 結果...

科學圖書發售委員會 定價表

自定價格 定價表

普通學生用

新編高等國語	10.00
新編高等算術	10.00
新編高等代數	10.00
新編高等幾何	10.00
新編高等物理	10.00
新編高等化學	10.00
新編高等生物	10.00
新編高等歷史	10.00
新編高等地理	10.00
新編高等公民	10.00
新編高等英語	10.00
新編高等日語	10.00
新編高等國文	10.00
新編高等書法	10.00
新編高等繪畫	10.00
新編高等音樂	10.00
新編高等體育	10.00
新編高等勞作	10.00
新編高等衛生	10.00
新編高等社會	10.00
新編高等政治	10.00
新編高等經濟	10.00
新編高等法律	10.00
新編高等哲學	10.00
新編高等宗教	10.00
新編高等藝術	10.00
新編高等科學	10.00

文友堂

한국 최초의 스포츠 영웅 진철의 자전기

“嚴福童의魂을 되살리자”

『주위의 스포츠 영웅 영웅(嚴福童)의 진철이 남긴 사적지와 기록, 유물, 유언 등을 정리하여 『한국 최초의 스포츠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펴낸다는 계획을 밝힌 진철의 아들인 진철은 1920년에 진철의 출생지인 서울 남대문로 11번길에 있는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日帶대 각종大會 석권, 민족경기 열거된 준 장본인
體育界, 당시 사단 公團 “스포츠영웅” 추대 움직임

6.25에 폭격으로 사망
일본군 1000여 명이 서울에 상륙하자마자 진철은 6.25에 폭격으로 사망했다. 일본군 1000여 명이 서울에 상륙하자마자 진철은 6.25에 폭격으로 사망했다.

진철하는 노학 유형
진철은 노학 유형이었다. 그는 노학 유형이었다. 그는 노학 유형이었다.

人氣치수지 갑의 양배
진철은 인기치수지 갑의 양배였다. 그는 인기치수지 갑의 양배였다.

자전거 상설시 열매
진철은 자전거 상설시 열매였다. 그는 자전거 상설시 열매였다.

1913년 첫 출장... 무자
진철은 1913년 첫 출장을 무자했다. 그는 1913년 첫 출장을 무자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진철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진철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안양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禮大동 3팀 결승에 격투부장관관 관전
제1회 전국대학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서울대학교 축구부(안양고)가 서울대학교 축구부(안양고)를 3대0으로 꺾고 우승했다.

루이스 3관왕
세계 육상 대회에서 루이스 선수가 3관왕을 차지했다.

代表선수들 본대이게 體戰
안양고등학교 대표 선수들이 본대이게 體戰했다.

전국女子테니스
전국 여자 테니스 대회에서 안양고등학교가 우승했다.

安養 西女中 金一蘭 都原姫 복싱서 「完全勝」
안양고등학교 서양여자중학교의 김일란 선수가 복싱 대회에서 완전승을 거두었다.

운동부 주도로 義務化
학교 운동부가 주도하여 의무화했다.

체육진흥부서 시정할 고쳐
체육진흥부서가 시정할 고쳐했다.

프로필 3명 탄생... 권력 11~14년, 10차례 도전 끝에
프로필 3명이 탄생했다. 권력 11~14년, 10차례 도전 끝에.

R 여자골프부 “豪華선수 상급 모두 쓸어간다” 비상
R 여자골프부가 “豪華선수 상급 모두 쓸어간다” 비상했다.

첫선 보인 여자 야구실업팀
첫선 보인 여자 야구실업팀이 등장했다.

한국, 개인·단체 석권
한국이 개인과 단체 석권을 거두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20년에 서울대 운동부에서 한국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콧속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감기로 인한 코막힘(비염)에도 아주 좋습니다.

추농증 스키어

만성 코막힘 현대...
● 콧속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 감기로 인한 코막힘(비염)에도 아주 좋습니다.
● 콧속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 감기로 인한 코막힘(비염)에도 아주 좋습니다.

6. 「전차 381호」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전차 381호」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10.3.8)된 「전차 381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4.2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역사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 「전차 38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서울역사박물관 야외전시장)
 - 수량 : 1량
 - 제조사 : 일본차량회사(日本車輛會社)
 - 형태 : 반강제(半鋼製) bogie 전차
 - 크기 : 길이 13.66m, 너비 1.8m, 높이 3.19m
 - 제작시기 : 1929년 추정
 - 운행시기 : 1930년대 ~ 1968.11.
 - 소유자 : 서울특별시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 검토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4.28) >

- ○ ○ ○ 문화재위원(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문화재명칭(안) : 전차 381호
 - 전차가 1960년대까지 많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중요했다는 점, 현존하는

2대중 다른 1대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전차가 보존상태, 원형과의 근접도 등에서 이미 등록된 다른 전차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 ○○○ 문화재전문위원(KAIST 부교수, 과학기술사)

-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의 전차 3대 중 하나이며 서울에 남아 있는 2대 중 하나로 희소가치가 크고 이미 등록된 ‘전차 363호’(등록 제426호)와 비슷한 시기에 수입 또는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 원형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고 여러 자료를 통해 충실히 복원되어 좋은 전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차 381호’는 국민들에게 우리 근대 동산유물의 가치를 알려줄만한 문화재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됨.

○ ○○○ 철도박물관장

-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시내에서 운행되었던 전차는 2량만 남아 있으며 서울시민이 수십 년간 도시교통수단으로 애용하며 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유물로 역사적인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추가 제작도 불가능함.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함이 타당함.

○ ○○○ 연세대학교 강사(과학기술사)

- 20세기 중반 서울의 교통 방식과 교통 문화를 알 수 있는 매우 값진 유물임. 1937년 전차 제작 도면을 참고로 한 섬세한 복원 작업으로 국립서울과학관 소재 ‘전차 363호’(등록 제426호)보다 상태가 좋음. 특히 속도제어기와 바닥의 점검구를 복원한 점은 ‘전차 363호’보다 실재성을 강화시킨 요소로 평가됨.
- 대한제국 시대부터 운영된 전차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평양 등에서도 운행되었고 이때 사업 및 운영 주체가 각 도시마다 달랐기에 도입된 전차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전차가 전국의 대표적 전차라고 보기 어려워 문화재 명칭은 ‘서울 전차 381호’로 제안함
- 일련번호가 ‘전차 363호’보다 늦지만 늦게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차 381호’의 운행시작 시기로 판단되는 1929년, 1930년은 청량리-역전 노선 연장(1929년 7월), 종로-안국동 복선화(1929년 7월), 총독부-안국동(1929년 8월) 및 신용산-한강인도교 노선 신설(1929년 9월) 등으로 이전보다 많은 전차차량이 필요했던 시기고 신노선 및 복선 노선의 전차 운영을 위해 전차 차량이 다수 수입되었을 것이므로, ‘전차 363호’보다 일련번호가 늦다고

하여 이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차량 내부 차체에 새겨진 홍보문구들(‘출입구 막지 말고 좌석은 노유에게, 불평따라 간첩오고 자랑속에 비밀샌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호석으로 안내합시다, 전차 안은 서로서로 깨끗이’ 등)은 1960년대의 생활상, 사회분위기, 디자인(타이포그래피)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임.
- 다만, 전차 내부를 전체적으로 1960년대의 분위기를 반영해 복원한 만큼 다음 사항의 수정이 요구됨.
 - 객석 폭 축소, 객석 시트 제거, 조명등(비록 1937년의 도면을 토대로 복원했다고 하더라도 1960년대까지 조명등 상태를 제조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음), 비역사적 모형(외부의 아기 업은 엄마) 제거, 내부 노선도 제거, 외부 종착지 안내판 제거

< 근대문화재과 의견 >

-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2대의 전차 중 한 대로, 이미 등록된 ‘전차 363호’(등록 제426호)보다 상태가 좋고 시기도 늦지 않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결과 : 원안가결

- 문화재 등록예고함.
 - 보수과정에서 변형된 부분은 원형 복원을 권고함.
- 출석 7명, 찬성 7명

- 붙임 1. 조사보고서('10.4.28) 1부
2. 서울시 제출자료 1부

전차 381호 조사보고서

1. 명칭(안) : 전차 381호
2. 용 도 : 동산(전시용)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서울역사박물관 야외전시장)
4. 소유자 : 서울특별시
○ 소유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 대상물 개요
 - 수 량 : 1량
 - 제조사 : 일본차량회사(日本車輛會社)
 - 형태 : 반강제(半鋼製) bogie 전차
 - 크기 : 길이 13.66m, 너비 1.8m, 높이 3.19m
 - 제작시기 : 1929년~1930년 추정
 - 운행시기 : 1930년대~1968.11.
 - 전차 연혁
 - 1929 제작(추정)
 - 1930년대~1968.11. 서울시내 운행
 - 1973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전시
 - 2007.10. 서울역사박물관이 인수
 - 2008.9.~2009.8. 보존처리
 - 2009.9.15 서울역사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
 - 주요특징
 - 서울에 남은 마지막 전차 2대 중 1대
 - 서울역사박물관이 자비로 보존처리를 완료하여 전차가 운행될 당시의 모습으로 복구함.

6. 조사자 의견('10.4.28)

< ○○○ 문화재위원(서울대 교수, 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전차 381호
- 1930년대 일본차량제조주식회사가 제작한 전차이다. 도입 후 1968년까지 서울에서 운행한 전차로서 현재 남아 있는 2대중 1대이다. 훼손된 부분과 페인트 등을 1930년대 당시 도면, 1960년대 기록 등을 참조하여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좌석, 천장 조명등 등이 1960년대 당시 상황에 대한 상식과 벗어나는 느낌이 있다. 1960년대의 광고물을 설치하고, 대로변 입구에 전시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전차가 1960년대까지 많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중요했다는 점, 현존하는 2대중 다른 1대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전차가 보존상태, 원형과의 근접도 등에서 이미 등록된 다른 전차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 다만, 현재 천으로 씌워져있는 좌석은 목재로 바꾸고, 천장 조명등, 손잡이 등을 1960년대 당시 상황에 대한 상식에 맞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 ○○○ 문화재전문위원(KAIST 부교수, 과학기술사) >

○ 주요특징

- 차량 앞·뒷면, 중간에 타고 내리는 문이 있음(중간의 문은 운행 시 보수과정에서 새로 만든 것으로 판단됨).
- 내부 부착물인 출입구 손잡이, 목재좌석, 손잡이 봉, 벽체 창문기둥, 출입문 하드웨어, 발판 철제, 창문 트레이, 창문 손잡이, 벽체 손잡이 등이 보존되어 있음.
- 전차 운행 당시 생활상을 알려주는 60년대 금속명패 3점과 홍보문구가 보존되어 있음.

○ 의미와 가치

-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의 전차 3대 중 하나이며 서울에 남아 있는 2대 중 하나로 희소가치가 큼.
-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전차 363호(등록 제426호)와 비슷한 시기에 수입 또는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 원 설계도와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기관실, 실내 내부(조명·손잡이·60년대 광고 등)를 훌륭하게 복원하였으나 용단 의자는 나무 의자로 다시 바꾸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함.
- 보존 또는 전시 위치가 국민들에게 근대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장소로서 매우 훌륭함.
- 원형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고 여러 자료를 통해 충실히 복원되어, 좋은 전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차 381호는 국민들에게 우리 근대동산유물의 가치를 일러줄만한 문화재로서 손색이 없고 이후 정성스럽게 보존·관리되어야 할 유물로 판단됨.

< ○○○ 철도박물관장 >

-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시내에서 운행되었던 전차는 모두 폐기되고 현재 국립서울과학관 소장 전차363호(등록문화재 제426호)와 본 전차 381호 2량만 남아 있으며 서울시민이 수십 년간 도시교통수단으로 애용하며 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유물로 역사적인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추가 제작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등록

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보존과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유물의 보전에 기여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연세대학교 강사(과학기술사) >

- 문화재명칭(안) : 서울 전차 381호
- 20세기 중반 서울의 교통 방식과 교통 문화를 알 수 있는 매우 값진 유물이다.
- 1937년 전차 제작 도면을 참고로 한 섬세한 복원 작업으로 등록문화재인 서울 국립과학관 소재 <전차 363호>보다 상태가 좋다. 특히 속도제어기와 바닥의 점검구를 복원한 점은 ‘전차 363호’보다 실재성을 강화시킨 요소로 평가된다.
- 대한제국 시대부터 운영된 전차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평양 등에서도 운행되었다. 이때 사업 및 운영 주체가 각 도시마다 달랐기에 도입된 전차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전차가 전국의 대표적 전차라고 보기 어렵다.
- <전차 363호>보다 늦게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련번호가 <전차 363호>보다 뒤여서 시대적으로 늦게 생산되거나 도입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전차 381호>의 운행시작 시기로 판단되는 1929년, 1930년은 청량리-역전 노선 연장(1929년 7월), 종로-안국동 복선화(1929년 7월), 총독부-안국동(1929년 8월) 및 신용산-한강인도교 노선 신설(1929년 9월) 등으로 이전보다 많은 전차차량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신노선 및 복선 노선의 전차 운영을 위해 전차 차량이 다수 수입되었을 것이므로, <전차 363호>보다 일련번호가 늦다고 하여 이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차량 내부 차체에 새겨진 홍보문구들(‘출입구 막지말고 좌석은 노유에게, 불평따라 간첩오고 자랑속에 비밀샌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호석으로 안내합시다, 전차 안은 서로서로 깨끗이’ 등)은 1960년대의 생활상, 사회분위기, 디자인(타이포그래피)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다만, 전차 내부를 전체적으로 1960년대의 분위기를 반영해 복원한 만큼, 다음 사항의 수정이 요구된다.
 - 객석 폭 축소, 객석 시트 제거, 조명등(비록 1937년의 도면을 토대로 복원했다고 하더라도 1960년대까지 조명등 상태를 제조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음), 비역사적 모형(외부의 아기 업은 엄마) 제거, 내부 노선도 제거, 외부 종착지 안내판 제거

『전차 381호』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시 신청자료)

1. 유물 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서울역사박물관 야외전시장
- 제조사 : 일본차량제조주식회사(일본 나고야 소재)
- 형태 : 경성반강제사륜(京城半鋼製四輪) bogie-전차
- 크기 : 길이 13.66m, 너비 1.8m, 높이 3.19m
- 운행시기 : 1930년대 ~ 1968년 11월
- 소유자(관리자) :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 ※ 한국전력주식회사 → 어린이대공원(전차운행 중단 후) → 서울역사박물관(2007. 10)
- 보존처리 내역
 - 기간 : 2008년 9월 ~ 2009년 8월
 - 근거 : 일본차량제조주식회사 소장 경성전차 도면(1937년)

2. 서울시 검토결과

가.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 등록 가치 있음

- 조사일자 : 2010. 2. 2(화)
- 조사위원 : 손길신(철도박물관 관장), 김재문(철도대학 교수),
연갑수 위원(서울시 문화재위원회 4분과 전문위원)
- 공동의견 : 등록문화재 등록 가함
- 원형이 훼손된 부분을 과학적인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복원하여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음.
- 전차내부의 광고판에 60년대 광고를 설치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당시의 교통수단으로써 희소가치가 매우 큼.
- 조명과 의자 등 아직 자료를 확인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

나. 시 문화재위원회(2분과) 사전 심의 결과 - 등록 신청 가함

- 회의일자 : 2010. 2. 26(금)
- 참석위원 : 신승운 분과위원장 등 위원 7인과 손길신 위원
- 의결내용 :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가함

3. '전차 381호' 주요 특징

- 내부 부착물인 출입구 손잡이, 목재좌석, 손잡이 봉, 벽체 창문기둥, 출입문 하드웨어,

발판 철제, 창문 트레이, 창문 손잡이, 벽체 손잡이 등이 보존되어 있음

- 전차 운행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60년대 금속명패 3점(출입문과 창문에 부착된 상태)과 홍보문구가 보존되어 있음

<예> 좌석은 노유에게 짐은 무릎 위에, 다음 승객을 위하여 차례차례 안으로 창밖으로 손을 내노면 위험, 전차 안은 서로서로 깨끗이 등



전차 내부 금속명패

홍보문구

- 운행 당시의 지붕재료 보존 및 복원 : 전차보존상태 및 당시 사진을 참고하여 지붕재료인 목재와 방수천 보존(363호 전차는 금속판으로 처리되어 있음)
- 1968년 이전에 도색된 재료를 분석하여 퍼티 및 페인트 복원제작 후 사용하고, 전차자료와 도면 등을 근거하여 외부를 복원함
(363호 전차는 외부에 전체적으로 금속판을 덧입히고 도색을 하는 등 임의로 보수한 상태임)

4. '전차 381호' 보존처리 내용

- 도색 : 1968년 이전에 도색된 기존 페인트를 분석하여 페인트 복원 제작 후 사용



▲ 외장 페인트층 제거



▲ 퍼티 도포

- 지붕 : 기존의 목재 강화 부분과 방수천을 보존처리하여 원형을 보존



▲ 기존 방수천 보강



▲ 지붕 부식목재 보강

○ 내부

- 전용 리무버로 70년대 이후에 도색한 페인트만을 제거하여, 전차운행 당시의 칠과 홍보문안을 보존함
- 창문 가림막, 손잡이걸이봉 등의 기존 부속을 토대로 결실부위 복원
- 후대에 덧대어진 바닥목재를 제거 후, 당시 도면을 근거로 차량점검구 복원
- 광고판 개폐장치 등의 금속부속은 도면 및 일본에 보존되어 있는 당시 전차를 토대로 제작 후 복원



▲ 보존처리 전 내부



▲ 보존처리 후 내부



▲ 바닥의 결결구



▲ 광고판의 개폐장치



▲ 창틀 내부의 홍보 문구



▲ 천장의 손잡이대

7. 「명신여학교 교사자료」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숙명여자고등학교에 소장된 「명신여학교 교사자료」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09.10.26)된 「명신여학교 교사자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4.2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숙명여자고등학교장
- (2) 대상문화재 : 「명신여학교 교사자료」 1건 3점
 - 검토 대상 목록

명칭	수량	규격(cm), 재질	제작시기	비고
명신여학교 태극기	1점	135×105, 견직물	1906년	
명신여학교 현판	1점	200×76, 목재	1906년	
명신여학교 완문	1점	29.5×31.5, 종이	1907년	
계	1건 3점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 검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숙명여자고등학교 사료관)
 - 소유자 : 숙명여자고등학교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4.28) >

- ○○○ 문화재위원(국민대 교수, 근대사)
 - 문화재명칭(안) :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 명신여학교 '태극기'는 1906년 명신여학교 설립 기념으로 광무황제의 업귀비가 '명신여학교'라는 묵서와 함께 제작·하사한 것으로 일반 태극기와 달리,

명신여학교가 교육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황실에서 설립한 학교라는 점에서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

- 명신여학교 ‘현판’은 1906년 명신여학교 초창기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됨. 현판 자체만으로는 등록문화재의 가치에 덜 미칠지 모르나 태극기·완문과 함께 명신여학교의 역사적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보완적 성격을 지님.
- 명신여학교 ‘완문’은 1907년 5월 영친왕궁에서 명신여학교에 발급한 것으로, 황해도·전라도·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하사하여 명신여학교의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임. 대한제국 황실이 교육계몽운동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됨. 개별 등록보다는 태극기·현판과 함께 일괄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임.

○ ○○○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근대교육사)

- 문화재명칭(안) :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 명신여학교(현 숙명여자중·고등학교 전신)와 진명여학교는 엄 황귀비가 설립한 대표적인 여학교로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엄주익과 초대교장으로 30여 년을 재직한 이정숙 등이었음. 교·강사 중 주시경은 한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 조국애를 일깨우는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음. 교장도 무언의 실천적인 행동으로 생도들의 귀감이 되었음
-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은 근대교육사는 물론 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유물임에 틀림없음. 태극기는 다양하게 만들어지던 대한제국기 당시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고 현판이나 완문도 마찬가지로 민족의식이나 민족정신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황실에서도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노력의 ‘증거물’이기 때문임. 단순한 일개 학교 현판이 아니라 수렁에 빠진 조국을 건지기 위한 결정체로서 의미를 지님.
- 태극기·현판·완문은 숙명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던 명신여학교의 개교 초기에 해당되는 유물로 우리나라 근대교육사에 관한 소중한 자료이며, 그런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음.

○ ○○○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상임고문

- 문화재명칭(안) : 숙명여자고등학교 소장 명신여학교 태극기와 교사자료
- 조선말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1906.5.22. 순헌황귀비 엄씨가 명신여학교

를 설립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황실에서 제작·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로서 교육 현장에 발견된 최초의 태극기라는 점, 당시로는 볼 수 없었던 물감 사용 태극기라는 점, 4괘의 배치가 특이하여 당시의 황실 태극기 제작 기법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등에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큼.

- 이 태극기는 1906년 명신여학교 설립 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명신여학교’라는 묵서와 함께 고급 물감을 사용하여 4괘와 태극문양을 정교하게 틀을 짜서 날염한 기법이 특징임.
- 지금까지 그 무렵이나 일제 강점기에 발견된 태극기들은 물감이 귀하여 바느질 제작이 대부분이었으나, 명신여학교의 태극기는 대조적으로 물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황실만이 가질 수 있는 재료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제작자는 황실의 화공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건·곤·감·리의 4괘와 태극문양이 갖추어진 태극기로 당시 제작된 태극기는 괘 배치가 건괘의 대각선 위치에 곤괘가 대부분이고 더러는 감괘가 배치된 것도 발견되었으나 이 태극기는 건괘 대각선에 리괘가 배치된 아주 희귀한 것임.

마. 검토결과 : 원안가결

- 문화재 등록예고함.
 - 명칭은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으로 함.
- 출석 7명, 찬성 7명

- 붙임 1. 조사보고서('10.4.28) 1부
2. 서울시 제출자료 1부

명신여학교 교사자료 조사보고서

1. 명칭(안) : 명신여학교 교사자료
2. 용 도 : 동산(전시용)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숙명여고 사료관)
4. 소유자 : 숙명여자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5. 대상물 개요

- 유물목록

명칭	수량	규격(cm), 재질	제작시기	비고
명신여학교 태극기	1점	135×105	1906년	
명신여학교 현판	1점	200×76	1906년	
명신여학교 완문	1점	29.5×31.5	1907년	
계	1건 3점			

- 학교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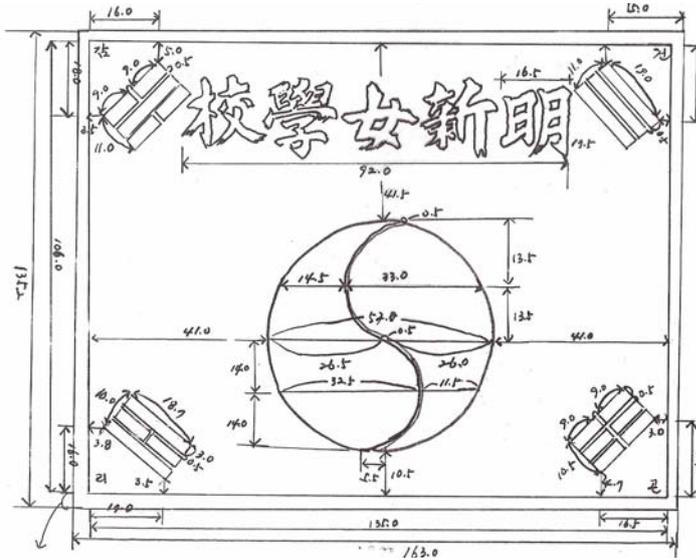
- 1906.5.22 종로구 박동(현, 수송동)에 사립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 설립
- 1907.5. 영친왕궁 농경지 하사
- 1908.12.28 사립명신고등여학교(私立明新高等女學校)로 교명 개칭
- 1909.7.15 사립숙명고등여학교(私立淑明高等女學校)로 교명 개칭
- 1912.1. 구왕실 경선궁 및 구 영친왕궁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재단법인 숙명학원 설립
- 1951.8. 숙명여자중학교를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자중학교로 개편
- 1980.3. 강남구 도곡동 현 부지로 교사 이전

6. 주요특징

- 명신여학교 태극기

- 순헌황귀비 엄씨가 1906년 5월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를 설립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황실에서 제작·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태극기 상단 중앙의 ‘明新女學校’라는 묵서와 함께 4괘와 태극문양을 틀을 사용하여 찍어낸 기법으로 제작. 당시로는 흔하지 않은 물감 사용 태극기라는 점, 4괘의 배치가 특이한 점, 교육 현장에서 발견된 최초의 태극기라는 점에서 교육사적·사료적 가치가 큼.

- 태극기 실측도



○ 명신여학교 현판

- 1906년 5월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 개교 초기에 사용하던 현판. 나무 널판 2매를 붙여 '명신여학교'라는 글자를 양각으로 새김. 크기는 전체 76×200cm,額 48.5×146cm, 書板 33.1×130.3cm. 네 가장자리는 조선시대 궁중 현판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액틀을 붙이고 채색으로 花草紋과 雲頭紋을 그렸음. 액틀 끝 세 군데가 일부 떨어진 것을 빼면 보존 상태는 양호. 현판 글씨는 태극기에 포함된 글씨와는 다른 필치로서 顏眞卿體를 배운 사람의 필적인 듯하나 쓴 사람은 미상임.

○ 명신여학교 완문

- 앞쪽에 '明新女學校'라 쓰여 있고 말미에 '英親王宮'이라 쓰여 있듯이 영친왕궁에서 명신여학교에 발급한 것. 1907년 5월에 영친왕궁에서 명신여학교의 곤궁한 운영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황해도, 전라도, 경기도에 있는 토지(농경지)를 하사한다는 내용. 대한제국기 황실에서 근대교육 초창기에 설립된 학교의 재정을 후원했음을 증명해주는 보기 드문 황실문서임.
- 완문(完文) 원문 및 역문

完文 明新女學校

右完文事所은 惟爾學校의 經用이 窘絀함을 特念하사 本宮所管 庄土中 黃海道 信川郡 魚蘆坪上下寧和地所在 庄土와 殷栗郡西面楊井村和地所在 庄土와 載寧郡西湖面貴人明惠桐及汗坪上下處與馬山垆和地所在 庄土와 安岳郡大元面延津村所在 庄土와 全羅南道 莞島郡助藥島所在 庄土와 京畿道 坡州郡長山津 屯土을 并以永付于爾學校 經費를 補用케 할 意로 奉承 自內處分하야 茲에 成完文明給하노니 爾職員은 此意를 惕念하야 敎務을 益張하며 人材을 培養하야 勉力 進就함을 爲惕事

光武 十一年 丁未 五月 日

英親王宮

이 토지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너희 학교의 재정이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특별히 생각하시어, 본궁에 딸린 장토 중, 황해도 신천군 어로빨 우틀 아래틀 고래땅 소재 장토와 은율군 서면 버들우물 말 고래땅 소재 장토와 재령군 서호면 귀인 명혜들과 땀뼈리 웃곤 아랫곶과 더불어 말피들 고래땅 소재 장토와 안악군 대원면 끝나루말 소재 장토와 전라남도 완도군 조약섬 소재 장토와 경기도 파주군 길피나루의 둔토를 모두 영원히 주어, 너희 학교 경비에 보태어 쓰게 할 뜻으로(명을 받들어 절차를 밟아) 이에 토지 문서를 만들어 분명히 주노니, 너희 교직원은 이 뜻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두려워하여, 교무를 날로 펴나가고 인재를 배양하여, 힘을 다해 진취함을 마땅히 할진저.

1907년 5월 일

영친왕궁

7. 명신여학교 설립 관련 신문기사

○ 1906년 4월5일 황성신문 3면

- 여학설립(女學設立) : 아국(我國)에서 광무2년(光武二年)에 여학교(女學校)라고 잠시설립(暫時設立)되야 사십오년(四十五年)을 근근지과(僅僅支過)하다가 발달(發達)치 못하여 잉즉폐지(仍卽廢止)하였더니 근일전설(近日傳說)을 문(聞)한즉(則) 평양(平壤)에 거주(居住)하난 부녀(婦女)들이 발기(發起)하고 애국여자학교(愛國女子學校)를 신설(新設)하난대 기취지서전문(其趣旨書全文)은 모신보(某新報)에 기기(己記)하였거니와 근우경성내(近又京城內)에서도 유지신사(有志紳士)의 부녀(婦女)등이 열심협의(熱心協議)하고 귀족부녀(貴族婦女)의 학교(學校)를 설립(設立)하기로 계획(計劃)한다니 오해(吾解)난 차(此)에 대(對)하여 축하(祝賀)하난 동정(同情)을 불감 심(不堪)하노니 대저문화(大抵文化)의 발달(發達)됨은 부녀(婦女)의 조력(助力)이 불소(不少)한즉(則) 부녀자교(婦女子校)의 설립(設立)함이 아한문화(我韓文化)에 대단관계(大段關係)됨을 확지(確知)하노라

○ 1906년 4월 24일 황성신문 2면

- 여교설립(女校設立) : 귀족여학교(貴族女學校)를 박동(磚洞) 소재(所在) 육군(陸軍) 법원장(法院長) 엄주익씨가(嚴柱益氏家)로 택정(擇定)하고 황귀비전하(皇貴妃殿下)께옵서 찬성(贊成)하샤 각 대신(大臣)과 신사(紳士)의 부인(夫人)이 협의(協議) 발기(發起) 하였난대 해교(該校)가 일간성립(日間成立)하기로 엄원장(嚴院長)은 다동(茶洞)으로 일작(日昨) 이도(移徒) 하였더라

○ 1906년 4월24일 대한매일신보 2면

- 황귀비여학(皇貴妃女學) : 황귀비전하(皇貴妃殿下)께옵서 여자교육(女子教育)이 무(無)함을 심우(深憂)하샤 육군참장(陸軍參將) 엄주익씨제(嚴柱益氏第)에 여자학교(女子學校)을 설(設)하야 여자교육(女子教育)을 발달(發達)코져하실새 동씨(同氏)로 학교설립사(學校設立事)를 전담(全擔)케 하시니 대한여자(大韓女子)의 교육(教育)이 차제발달(次第發達)하기를 가견(可見)함지로다

- 1906년 5월4일 황성신문 2면
 - 여도간품(女徒看品) : 화족여학교(華族女學校)를 박동(磚洞) 엄주익가(嚴柱益家)로 정(定)하고 학도(學徒)를 모집(募集)함은 본보(本報)에 이기(己己)하얏거니와 일작(日昨)에 각(各) 대관(大官)의 부인(夫人)이 경운궁내(慶運宮內)에 제회(齊會)하야 연회(宴會)를 설(設)하고 여학도(女學徒) 삼십여인(三十餘人)을 초입(招入)하야 해교총재(該校總裁) 황귀비전하(嚴皇妃殿下)께서 해학도(該學徒)를 일일(一一) 간품(看品)하오셨다더라
- 1906년 5월18일 황성신문 3면
 - 여학생(女學生) 모집(募集) 광고(廣告) : 본교(本校)에서 금월(今月) 이십일(二十日)에 개교식(開校式)을 거행(舉行)할터이니 사족(士族) 여자중(女子中) 입학(入學) 지원인(志願人)은 개교(開校) 전기(前期)하야 내청(來請)하시오. 연령(年齡)은 십일세(十一歲) 이상(以上) 이십오세(二十五歲) 이하자(以下者)로 불한관동(不限冠童)하고 인학(入學)을 허(許)흠. 취지(趣旨)와 세칙(細則)은 본교(本校)에 내문(來問)하시오.
- 한국사(韓國史) 통사론(通史論) 조선역사강설(朝鮮歷史講說) - 최남선
 -(중략)..... 닌에는 엄귀비(嚴貴妃)의 출력(出力)으로 사(四)월에 진명여학교(進明女學校)와 오(五)월에 숙명여학교(淑明女學校) 설립되니, 우리 힘으로 되는 여자 교육기관의 효시이며,(중략).....
- 1907년 2월21일 황성신문 2면
 - 황귀비전하장학(皇貴妃殿下獎學) : 황귀비전하(皇貴妃殿下)는 명신귀족여학교학도등(明新貴族女學校學徒等)의 수학(修學)하는 정황(情況)을 매차하문(每次下問)하시고 기진취(其進就)됨으로 유일악사(唯一樂事)를 삼는데 금번세기(今番歲時)에는 특별(特別)히 오백원금(五百圓金)으로써 해교직원일동(該校職員一同)과 하인등(下人等)에게 상급(賞給)하고 학원등(學員等)에는 장학금(獎學金)을 후사(厚賜)하섯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9.7.15
 - 교명개칭(校名改稱) : 박동(磚洞)에 재(在)한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는 금회(今回)에 숙명학교(淑明學校)로 개칭(改稱)하고 문전(門前)에 엄귀비전하(嚴貴妃殿下)의 친필(親筆)로 校名을 서게(書揭) 하얏다더라

8. 조사자 의견

< ○○○ 문화재위원(국민대 교수, 근대사) >

- 문화재명칭(안) : 명신여학교 태극기 · 현판 · 완문
- 명신여학교 ‘태극기’는 1906년 명신여학교 설립 기념으로 광무황제의 엄귀비가 ‘명신여학교’라는 묵서와 함께 제작, 하사한 것으로 일반 태극기와 달리, 명신여학교가 교육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황실에서 설립한 학교라는 점에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명주천에 날염으로 제작된 태극기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 명신여학교 ‘현판’은 1906년 명신여학교 초창기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판 자체만으로는 등록문화재의 가치에 덜 미칠지 모르지만, 태극기·완문과 함께 명신여학교의 역사적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괄 등록문화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명신여학교 ‘완문’은 1907년(광무 11) 5월 영친왕궁에서 명신여학교에 발급한 것으로, 황해도·전라도·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하사하여 명신여학교의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제국 황실이 교육계몽운동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등록보다는 태극기·현판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근대교육사) >

- 문화재명칭(안) :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 ‘을사늑약’ 이후 국권은 일제 침략의 강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상실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각종 정치단체나 학회 등은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內修外學에 입각한 自強論은 이러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국권을 수호하려는 노력은 결국 계몽운동을 확산시키는 ‘기독교’나 다름없었다. 특히 의무교육론 대두와 더불어 사립학교설립운동은 교육구국운동으로 전개되는 계기를 맞았다. 이는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적인 운동이나 마찬가지였다. ‘한일합병’ 이전까지 설립된 6,000여 사립학교와 1,500여 개소에 달하는 야학은 이를 반증한다.
- 명신여학교(현 숙명여자중·고등학교 전신)와 진명여학교는 이러한 의도에 따라 엄 황귀비께서 설립한 대표적인 여학교이다. 학교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嚴柱益과 초대교장으로 30여 년을 재직한 李貞淑 등이었다. 명신여학교는 이른바 일본의 學習院이나 華族學校와 같은 귀족학교로서 출발하여 양반가 부녀자의 신교육을 통한 국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궁녀 중 20여 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후 일반 부녀자들도 수용함으로써 여성교육의 ‘요람지’로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1920년대 후반 식민지 노예교육에 대한 저항은 이러한 학교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 교·강사 중 周時經은 한글을 통하여 생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그는 남녀 차별과 내외법이 온존(溫存)한 상황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한글전용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열정적인 강의는 생도들에게 조국애를 일깨우는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교장도 무언의 실천적인 행동으로 생도들의 귀감이 되었다. 졸업생들 상당수는 ‘직업부인’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 명신여학교 태극기는 1906년 설립시 고종황제 엄 황귀비께서 '명신여학교'라는 묵서와 함께 제작하여 하사한 것으로, 고운 명주천에 4괘와 태극문양을 찍어서 제작한 태극기이다. 이는 생도들에게 애국심 고취는 물론 국가정신·민족의식을 앙양하기 위함이었다. 민족교육의 산실로서 발전은 이러한 의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태극기를 통한 현장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4괘 배치가 특이한 점을 살펴볼 때 대한제국기 태극기 변천과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 명신여학교 현판은 1906년 개교 초기에 사용하던 현판이다. 나무 널판 2매를 붙여 “명신여학교”라는 글자를 陽刻으로 새기고 그 위를 洋靑色으로 칠하였다. 크기는 전체 76×200cm, 額 48.5×146cm, 書板 33.1×130.3cm이다. 네 가장자리는 조선시대 궁중 현판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액틀을 붙이고 채색으로 花草紋과 雲頭紋을 그렸다. 액틀 끝 세 군데가 일부 떨어진 것을 빼면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현판 글씨는 태극기에 포함된 글씨와는 다른 필치로서 顏眞卿體를 배운 사람의 필적인 듯하나 쓴 사람은 미상이다.
- 명신여학교 완문은 앞쪽에 “明新女學校”라 쓰여 있고 말미에 “英親王宮”이라 쓰여 있듯이 영친왕궁에서 명신여학교에 발급한 것으로 다섯 군데에 [英親王宮]이란 인영(印影)이 찍혀 있다. 크기는 29.5×31.5cm이다. 1907년(광무 11) 5월에 영친왕궁에서 명신여학교의 곤궁한 운영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황해도, 전라도, 경기도에 있는 토지[농경지]를 내부(內府)의 처분을 받들어 하사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제국기 황실에서 근대교육 초창기에 설립된 학교의 재정을 후원했음을 증명해주는 보기 드문 황실문서이다.
-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등은 근대교육사는 물론 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유물임에 틀림없다. 태극기는 다양하게 만들어지던 대한제국기 당시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태극기를 통하여 민족의식이나 민족정신을 일깨우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개교기념일 등을 포함한 학교의 주요행사에는 반드시 태극기를 전면에 내걸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하여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아울러 뜨거운 조국애를 스스로 자각하는 계기를 가졌다. 현판이나 완문도 마찬가지이다. 왕실에서도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노력의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일개 학교 현판이 아니라 수렁에 빠진 조국을 건지기 위한 결정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 위 태극기·현판·완문 3건은 숙명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던 명신여학교의 개교 초기에 해당되는 유물로 우리나라 근대교육사에 관한 소중한 자료이며, 그런 점에서 근대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 ○○○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상임고문 >

- 문화재명칭(안) : 숙명여자고등학교 소장 명신여학교 태극기와 교사자료

- 태극기가 매우 양호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태극기가 명신여학교가 개교되고 얼마되지 않아 1910년 경술국치와 더불어 사용되지 못한 채 잘 숨겨진 원인으로 추측된다.
- 조선말기 역사의 한·일 소용돌이 속에서 1906.5.22. 순헌황귀비 엄씨가 명신여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황실에서 제작·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로서 교육 현장에 발견된 최초의 태극기라는 점, 당시로는 볼 수 없었던 물감 사용 태극기라는 점, 4괘의 배치가 특이하여 당시의 황실 태극기 제작기법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등에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 이 태극기는 1906년 명신여학교 설립 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명신여학교’라는 묵서와 함께 고급 물감을 사용하여 4괘와 태극문양을 정교하게 틀을 짜서 날염한 기법이 특징이다.
- 지금까지 그 무렵이나 일제 강점기에 발견된 태극기들은 물감이 귀하여 바느질 제작이 대부분이었으나, 명신여학교의 태극기는 대조적으로 물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황실만이 가질 수 있는 재료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제작자는 아마도 황실의 화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건·곤·감·리의 4괘와 태극문양이 갖추어진 태극기이다. 당시 제작된 태극기는 괘 배치가 건괘의 대각선 위치에 곤괘가 대부분이고 더러는 감괘가 배치된 것도 발견되었으나 명신여학교의 태극기는 건괘 대각선에 리괘가 배치된 아주 희귀한 것으로 그 무렵 황실의 태극기 모양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 유리 액자 가로 163.0cm 세로 135.2cm 속에 가로 135.0cm 세로 105.0cm 크기로 표구되어 있고 제작기법을 보면 우선 아주 고운 명주천에 4괘와 태극문양의 판을 짜 물감을 찍어서 제작한 태극기이다. 제작 시 처음부터 의도하여 가로 16.5cm 세로 17.5cm 크기의 ‘明新女學校’라는 묵서 위치를 포함하여 태극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괘는 검정색, 양방은 홍색, 음방은 청색으로 찍었고, 묵서 부분의 ‘明新女學校’도 붓으로 쓰기 보다는 글씨 모양대로 본을 떠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 건괘는 태극기를 바라볼 때 우측 상단 모서리에 가로 약 19.0cm 세로 11.0cm 크기로, 곤괘는 우측 하단 모서리에 가로 약 18.0cm 세로 10.5cm 크기로 놓여 있다. 또한 감괘는 좌측 상단에 가로 약 18.0cm 세로 11.0cm 크기로, 이괘는 가로 약 18.7cm 세로 10.0cm 크기로 놓여 있다. 태극문양은 지름 약 53.0cm 안에 좌측은 음방(청색) 우측은 양방(홍색)의 좌우 대칭형이다. 양방의 머리는 건괘와 감괘의 중앙에 두고 우측 등을 따라 곤괘와 이괘의 중앙에서 꼬리를 맺었고 반대로 음방은 곤괘와 이괘의 중앙에 머리를 두고 좌측 등을 따라 오르다가 건괘와 감괘의 중앙에서 꼬리를 맺었다.

『숙명여고 교사자료』 등록문화재 신청 자료(서울시 제출자료)

1. 등록신청 문화재 현황

연번	명칭	수량	재질	시대	규격(cm)	소재지(소유자)
1	명신여학교 태극기	1점	견본채색	1906년	가로 135 세로 105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 (숙명여고)
2	명신여학교 현판	1점	나무	1906년	가로 200 세로 76	
3	명신여학교 완문	1점	지본묵서	1907년	가로 29.5 세로 31.5	

2. 숙명여고 개요

가. 설립자 : 엄순헌황귀비(嚴純獻皇貴妃)

순헌황귀비 엄비(1854-1911)

순헌황귀비 엄비(純獻皇貴妃 嚴妃)는 고종황제의 계비로 구한 말 폭풍우 앞에 촛불과 같은 이 나라 이 겨레를 계몽과 교육을 통해 구하려 한 여성 선구자의 한 사람이다. 1897년 음력 9월 44세 때 영친왕(英親王) 은(垠)을 낳았다. 이에 엄상궁은 경선당(慶善堂)의 당호를 받았고 이어서 선영(善英)이라는 이름을 받고, 내명부의 종1품직인 귀인(貴人)에 봉직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 8월 3일 순빈(淳嬪)이 되고, 뒤이어 1901년 10월 14일 순비(淳妃)에 봉해지고 다시 1903년 12월 25일 내명부의 가장 높은 자리인 황귀비(皇貴妃)라는 칭호를 받으며 경선궁(慶善宮)에 거처하게 되었다.

<한국역사속의 여성인물 상/ 한국여성개발원, 1998>

나. 주요 설립연혁

- 1906. 5. 22 용동궁(現 수송동)에 사립 명신여학교 설립
- 1909. 5. 교명을 사립 숙명고등여학교로 개칭
- 1912. 1. 구왕실 경선궁 및 구 영친왕궁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재단법인 숙명학원 설립
- 1951. 8. 숙명여자중학교를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자중학교로 개편
- 1980. 3 강남구 도곡동 현 부지로 교사 이전

『황성신문』 1906년 4월 24일 2면 : 명신여학교 설립

여교설립(女校設立) : 귀족여학교(貴族女學校)를 박동(磚洞) 소재(所在) 육군(陸軍) 법원장(法院長) 엄주익씨가(嚴柱益氏家)로 택정(擇定)하고 황귀비전하(皇貴妃殿下)께옵서 찬성(贊成)하샤 각 대신(大臣)과 신사(紳士)의 부인(夫人)이 협의(協議) 발기(發起) 하얏난대 해교(該校)가 일간성립(日間成立)하기로 엄원장(嚴院長)은 다동(茶洞)으로 일작(日昨) 이도(移徙) 하얏더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15일 2면 : 명신여학교 → 숙명학교로 개칭

교명개칭(校名改稱) : 박동(溇洞)에 재(在)한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는 금회(今回)에 숙명학교(淑明學校)로 개칭(改稱)하고 문전(門前)에 황귀비전하(皇貴妃殿下)의 친필(親筆)로 *校名을 서게(書揭)하였다더라

다. 창립재정

- 1906년 엄황귀비는 박동(現 수송동)에 위치한 사저 용동궁을 학교 용지와 교사로 하사
- 영친왕궁으로부터 1907년 황해도 재령군, 신천군, 경기도 과주군 소재 농경지를 하사

『숙명50년사』 (淑明五十年事, 1956년 5월 21일 발간)

엄순헌황귀비 하사품

금일(今日)의 학교소재지(學校所在地) 수송동(壽松洞)을 그때는 溇洞(박동)이라 일컬었고 이곳 용동궁(龍洞宮)터는 본시 경선궁(慶善宮) 소유(所有)로 되어있던것이 나중에 엄비[嚴妃황귀비(皇貴妃)]의 사재(私財)로 되어 교사(校舍)로 쓸 옥사(屋舍)가 전술(前述)한 바와같이 칠십오간(七十五間) 지면(地面)이 480평(四八〇坪), 게다가 경비보조(經費補助)의 하사(下賜)까지 받게되어 일회(一回)때는 생도(生徒) 사(四)명을 상대(相對)로 수업(授業)을 개시(開始)하였는데...

영친왕궁 하사품

단기 4241년 5월(四二四一年五月) 영친왕궁(英親王宮)으로부터 숙명여성교육(淑明女性教育)을 위(爲)하여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과 경기도(京畿道) 과주군소재(坡州郡所在) 농경지(農耕地) 약(約) 일천여정보(一千餘町步)의 하사(下賜)를 받았다.

3. 문화재 등록 관련 경과사항

가. 문화재 지정조사

- 조사일시 : 2009. 8. 10(월)
- 조사위원 : 이완우(2분과위원), 정재정(2분과위원), 송명호 태극기전문가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상임고문)

○ 조사내용 및 조사위원 공동의견

① 명신여학교 『태극기』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 1906년 명신여학교 설립시 고종황제 엄 황귀비께서 '명신여학교'라는 묵서와 함께 제작하여 하사한 것으로, 고운 명주천에 4괘와 태극문양을 찍어서 제작한 태극기임
- 보통의 4괘 배치는 건괘와 곤괘가 대각선으로 마주하나, 본 태극기는 건괘와 이괘가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음
- 태극기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데, 명신여학교가 개교되고 얼마 되지 않아 1910년에 경술국치와 더불어 사용되지 못한 채 숨겨진 원인인 것으로 추측됨
- 조선말기 1906년 설립한 최초의 여학교에 특별히 엄 황귀비께서 태극기를 제작하여 애국심을 심어주리라는 국권의 정신과 함께, 4괘 배치가 특이한 점을 살펴볼 때 1900년대 초기의 태극기 변천과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큼

② 명신여학교 『현판』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 1906년 명신여학교가 개교할 초기에 사용하던 현판으로, 나무 널판 2매를 붙여 “명신여학교”라는 글자를 양각(陽刻)으로 새기고 그 위를 양청색(洋靑色)으로 칠하였음
- 네 가장자리는 조선시대 궁중 현판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액틀을 붙이고 채색으로 화초문(花草紋)과 운두문(雲頭紋)을 그렸으며, 액틀 끝 세 군데가 일부 떨어진 것을 빼면 보존 상태는 양호함
- 현판 글씨는 태극기에 포함된 글씨와는 다른 필치로서 안진경체(顔眞卿體)를 배운 사람의 필적인 듯하나 쓴 사람은 미상임

③ 명신여학교 『완문』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 앞쪽에 “明新女學校”라 쓰여 있고 말미에 “英親王宮”이라 쓰여 있듯이 영친왕궁에서 명신여학교에 발급한 것으로 다섯 군데에 [英親王宮]이란 인영(印影)이 찍혀 있음
- 1907년(광무 11) 5월에 영친왕궁에서 명신여학교의 곤궁한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황해도, 전라도, 경기도에 있는 토지[농경지]를 내부(內府)의 처분을 받들어 하사한다는 내용임
- 대한제국기 황실에서 근대교육 초창기에 설립된 학교의 재정을 후원했음을 증명해주는 보기 드문 황실문서임

나. 서울특별시 문화재 위원회(2분과) 제2차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09. 10. 23(금) 15:00

○ 의결내용 : 문화재청에 등록신청 가함

- 위 태극기, 현판, 완문 3건은 숙명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던 명신여학교의 개교 초기에 해당되는 유물로 우리나라 근대교육사에 관한 소중한 자료이며, 그런 점에서 근대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8. 「윤이상 육필악보」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윤이상기념관에 소장된 「윤이상 육필악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07.11월 독일 현지조사 이후 국내 미반입으로 등록이 보류되었던 윤이상 육필악보 중 3점이 '10.3월 국내에 반입됨에 따라 현지조사('10.5.12)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윤이상 육필악보」
 - 검토 대상 목록

작품명	수량	규격(cm), 재질	작곡년도	비고
가락 -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락'	1점 22면	268×338, 종이	1963년	
영상 -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영상'	1점 50면	268×338, 종이	1968년	
밤이여 나뉘어라 - 소프라노와 실내악상블을 위한 '밤이여 나뉘어라'	1점 44면	268×338, 종이	1980년	
계	1건 3점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48(윤이상기념관)
- 소유자 : 통영시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예고 여부 검토
- (4) 추진경과
 - '07.11.26~12.1 윤이상 육필악보 독일 현지조사(문화재위원 이만열, 전문가 허영한·홍은미 / 악보 117점 중 수고 112점 조사, 등록 검토대상 45점 추천)
 - '08.2.29 수고악보 등록조사 보고, 이후 국내 반입문제로 등록 보류

- '10.3.19 통영시가 '도천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윤이상 기념관' 개관 (악보 3점 포함하여 자동차 등 유품 148종 412점 기증·구입)
- '10.5.12 육필악보 3점 등록조사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5.12) >

- ○○○ 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사)
 - 한국의 세계적 작곡가인 윤이상 선생의 작품 3편의 수고는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연구하고 알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유품이며 선생 자필의 수고로 그 가치가 큼. 일부 악보는 작곡 이전의 구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작곡가가 직접 수정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작곡가의 작곡 과정을 살피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고들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1980년 작품인 <밤이여 나뉘어라>는 윤이상 작품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가락>은 윤이상이 유럽에서 활동한 초기 시절인 1963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며 제목을 우리말인 '가락'이라고 한 점에서 윤이상 선생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음.
 - <영상(이마주)>는 동백림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 중에 완성한 곡으로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곡에 전념하는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으며, 평양의 강서고분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그 의미가 큼. 명칭은 윤이상의 <이마주> 수고 또는 윤이상의 <영상> 수고로 제안함.
 - <밤이여 나뉘어라>는 1980년 작곡한 자필 수고로 유대인 넬리 작스의 시를 다룬 곡이며 인류 역사의 아픔을 전달하기는 하나 한국 또는 동아시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문화재 등록에 다소 유보적으로 생각됨.
-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음악사)
 - 윤이상이 반평생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고 독일에서 작곡된 작품이지만 그 소리의 원천이 그가 다른 반평생을 보낸 한국에 근거하고 독일 정부나 여러 문화단체가 훈장 내지 상을 통해 그의 음악을 동·서 문화융합이라 일컬으며 가치부여를 한 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있어 문화적 이질성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런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 또한 독일에서 작성된 작품연보에 수록된 곡의 수가 120여점에 달하고 윤이상이 거둔 국제적인 평가가 어느 특정음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굳이 이 세 작품을 개별적으로 선별하기보다 일괄적으로 등록하고 추후 다른 작품들도 문화재로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사료됨.
- <가락>은 서구의 음렬기법이 한국적 소리 상(像)에 종속되도록 자유롭게 운용됨으로써 윤이상의 고유한 ‘주요음기법’이 창안된 산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영상(이마주)>은 한국적인 인상 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철학적인 깊이까지 보이려 한 작품으로 서대문형무소와 서울대병원이라는 작곡 장소가 작품의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일부로서의 가치를 더함.
- <밤이여 나뉘어라>는 추상성보다 언어(가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하는 첫 작품으로서 의미를 지님. 시인 벨리 작스(1891~1970)의 시집 ‘밤이여 나뉘어라(1971년 사후 출간)’에서 세 편을 선택해 자신의 시간들도 음악으로 끼어들게 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한 나치와 그 여파로 동과 서로 분단된 독일, 그 뒤로도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양립, 굳이 한국전쟁·남북분단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위기는 불의로 인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침묵하는 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일임을 호소하고픈 한 예술가의 양심으로 서구사회에 받아들여졌음. 이는 뛰어난 작곡가에서 존경받는 예술가로 격상되는 전환점이므로 그 가치가 뛰어나.

○ ○○○ 문화재전문위원(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등록기준인 50년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나, 윤이상 선생 수고 악보가 가지는 문화사적·음악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가락>과 <영상>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밤이여 나뉘어라>는 비교적 최근작이고 『작곡가 윤이상 선생 수고악보 등록조사보고서(2008, 문화재청)』에서도 추천되지 않았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근대문화재과 의견 >

- 수고 악보 중 ‘가락’과 ‘영상’은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밤이여 나뉘어라’ 악보는 시대가 뒤떨어지고(1980년 작), ‘08년도 육필악보 등록 검토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 등록을 보류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 단, 명칭은 ‘수고 악보’보다는 ‘육필악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윤이상 육필악보」로 상정함.

마. 검토결과 : 보류

- 문화재 등록 보류함.
 - 음악분야 비중있는 육필악보 등 전체적 조사 후에 판단하기로 함.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조사보고서('10.5.12) 1부

윤이상 육필악보 조사보고서

1. 명칭(안) : 윤이상 육필악보
2. 용 도 : 연주용
3.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48(윤이상 기념관)
4. 소 유 자 : 통영시
 -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5. 대상물 개요

- 유물목록

작품명	수량	규격(cm), 재질	작곡년도	비고
가락 -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락'	1점 22면	268×338, 종이	1963년	
영상 -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영상'	1점 50면	268×338, 종이	1968년	
밤이여 나뉘어라 - 소프라노와 실내악합주를 위한 '밤이여 나뉘어라'	1점 44면	268×338, 종이	1980년	
계	1건 3점			

6. 주요특징

- 가락 (1963년 작)
 - 18라인 악보 22면
 - 1964.9.11 베를린에서 카를-베른하르트 제본, 호르스트 괴벨의 연주로 초연됨.
 - 같은 해에 좀 더 일찍 완성한 바이올린+피아노 듀엣곡인 <가사>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곡인데, 12음 기법의 의존도가 아직은 높은 편이지만 특정 음을 중심으로 곡을 전개시키는 '주요음 기법(Haupttontechnik)'이 실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기의 작품으로 중요하게 취급됨. 길게 끄는 음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정적인 부분과 빠르게 음을 쏟아내며 역동감을 나타내는 동적인 부분의 대비라는 요소가 꽤 강조되어 나오는 것도 특징.
- 영상 (1968년 작)
 - 26라인 악보 6면, 24라인 악보 4면, 14라인 악보 40면
 - 1969.3.24 오클랜드·캘리포니아에서 밀스 칼리지 신음악 앙상블의 연주로 초연됨.
 - <영상>은 윤이상이 강서고분의 고구려 벽화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임. 강서고분 벽화의 북쪽에는 현무, 동쪽에는 청룡, 남쪽에는 주작이 그려져 있음. 그러나 윤이상은 서쪽 벽의 그림만을 <영상>에 담았음. 서쪽 벽의 백호는 가을과 쇠붙이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수호신상 속에 청룡, 현무, 주작의 그림 조각들이 함께 짜 맞추어져 있음. 즉 네 수호신적 존재가 하나로 융해되어 보는 사람의 위치

에 따라 각각 다른 짐승의 형상이 나타남. 윤이상은 이 벽화를 음악으로 표현할 때 플루트가 현무를, 오보에가 청룡을, 바이올린이 주작을, 첼로가 백호를 상징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어느 이상적 위치에서도 네 가지의 일원성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보는 이가 위치를 바꿈에 따라 바로 그 순간 눈에 들어오는 그림도 다름. 작곡 의도는 각자 흩어지려는 것을 하나의 완성체로 모으려는 시도에 있음.

○ 밤이여 나뉘어라(1980년 작)

- 28라인 악보 4면, 26라인 악보 40면
- 1981.4.26 비텐에서 도러시 도로우의 독창으로 초연됨.
- 윤이상은 예술가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들을 예술 속에서 표현해보려는 의도에서 1980년 유대인 넬리 작스(Nelly Sachs,1891~1970)의 시를 작품에서 다루었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여류 시인의 사후 1971년에 출간된 시집 [밤이여 나뉘어라]에서 작곡가 윤이상은 3편의 시를 골라냄. 그녀의 시들은 대조를 통하여 분명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지만 윤이상은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풍부한 음색과 연주 형상으로 흘러가게 하였음.

7. 인물 소개

○ 작곡가 윤이상(尹伊桑, 1917.9.17~1995.11.3)

-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서울로 납치·구속되었다 독일정부와 세계 음악계의 구명운동으로 2년여만에 석방·영구추방됨
- 윤이상은 1917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자랐다. 1943년까지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첼로와 작곡을 공부했다. 일제치하에서 항거조직 결성을 시도하던 중 한글 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 발각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 격변기에 통영 현악4중주단을 창단, 첼리스트로 활동하는 한편 교편생활과 더불어 통영 문화협회 등에 소속되어 계몽활동에 열정을 바쳤다. 1941년부터 1948년에 이르기까지 틈틈이 작곡한 가곡들을 모아 1950년 가곡집 ‘달무리’를 발표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작곡한 수많은 동요들도 같은 해에 발간된 김인정 교과서에 실렸다. 한국 전쟁의 와중에도 다른 동료작곡가들과 ‘전시작곡가협회’를 결성, 한국의 현대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가르치던 그는 1955년 서울시 문화상 수상을 계기로 유학을 결심, 1956년 프랑스의 파리로 떠난다. 1957년부터 1959년까지 독일의 서베를린에서 보리스 블라허에게 작곡을 사사한 그는 1959년 여름, 다름슈타트 국제 하기음악제에서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으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졌다.
- 활발한 연주활동을 위해 섬과 같은 도시 베를린을 떠났던 윤이상은 1964년 <포드 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아 다시 서베를린으로 이주했다. 이후 영면할 때까지 이곳에 정착

하여 살면서 1971년 독일 시민권을 획득했다. 1963년 6·25때 납북된 죽마고우를 찾아 평양을 방문하고 강서고분을 답사했던 윤이상은 1967년 이른바 ‘동베를린 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서울로 납치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고 거듭되는 심리 속에 사면되기까지 감옥과 병원을 오갔다. 1969년 3월 독일로 귀환한 윤이상은 이후 망명음악가로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경고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걸작들을 써나갔다.

- 1969~70년에 하노버 음악대학으로 출강하던 윤이상은 1970년 베를린 예술대학의 작곡과 교수로 초빙되어 1985년까지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그의 영향권은 독일 지역을 넘어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북한 등지에까지 이른다. 퇴임 이후로도 활발한 작곡과 강연 및 작곡 연수과정을 통해 세계음악계에 이바지하던 그는 1995년 11월 3일 베를린 자택에서 별세했다. 그는 생전에 함부르크 및 베를린 예술 아카데미의 회원, 국제현대음악학회(IGNM)의 명예회원, 잘츠부르크 유럽 과학 예술 아카데미(Academia Scientiarum et Artium Europaea)의 회원이 되는 영예뿐만 아니라 튀빙엔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대공로 훈장을 받는 등의 영예도 누렸다.

8. 조사자 의견

<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음악사) >

- 문화재명칭(안) : 윤이상 수고 악보
- 한국의 세계적 작곡가인 윤이상 선생의 작품 3편의 수고는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연구하고 알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유품이다. 이번에 입수된 3편은 모두 윤이상 선생 자필의 수고로 그 가치가 크다. 특히 일부 악보는 작곡 이전의 구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작곡가가 직접 수정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작곡가의 작곡 과정을 살피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고들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단, 1980년 작품인 <밤이여 나뉘어라>는 윤이상 작품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 가락
 - 문화재명칭(안) : 윤이상의 <가락> 수고
 - 윤이상이 유럽에서 활동한 초기 시절인 1963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며 제목을 우리말인 ‘가락’이라고 한 점에서 윤이상 선생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가락’ 수고는 2종이 있는데 국내에 반입된 이 악보는 미반입된 것보다 먼저 만들어진 최초의 원본으로 수고에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작곡가의 작곡과정을 엿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이마주
 - 문화재명칭(안) : 윤이상의 <이마주> 수고 또는 윤이상의 <영상> 수고

- 1968년 작품인 <이마주>는 동백림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 중에 완성한 곡으로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곡에 전념하는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 특히 이 작품은 6-7세기 경의 강서고분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그 의미가 크다.
- 밤이여 나뉘어라
 - 윤이상의 자필 수고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 이 곡은 1980년 유대인 넬리 작스의 시를 가사로 한 곡으로 한국 또는 동아시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문화재 등록에 다소 유보적이다.
 - 하지만 파시즘의 집단수용소 문제를 다루는 시가 포함되어 세계인으로써 인류 역사의 아픔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음악사) >

- 독일 유학시절 여러 해 윤이상 선생님을 가까이 대했던 바 육안으로 판단하는 한 세 점 모두 윤이상의 친필로 그린 악보임이 분명하다. 윤이상이 반평생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고 독일에서 작곡된 작품이지만 그 소리의 원천이 그가 다른 반평생을 보낸 한국에 근거하고 독일 정부나 여러 문화단체가 훈장 내지 상을 통해 그의 음악을 동·서 문화융합이라 일컬으며 가치부여를 한 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근현대음악사에 있어 문화적 이질성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런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또한 독일에서 작성된 작품연보에 수록된 곡의 수가 120여점에 달하고 윤이상이 거둔 국제적인 평가가 어느 특정음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굳이 이 세 작품을 개별적으로 선별하기보다 일괄적으로 등록하고 추후 다른 작품들도 문화재로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사료된다.
- 가락
 - 1960년대에 윤이상은 당시 대부분의 서구음악 작곡가들이 사용하던 첩단의 기법인 12음기법과 한국 고유의 음형을 연결시키려는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가락(1963)>을 비롯하여 <바라(1960)>, <낙양(1962)>, <가사(1963)>, <노래(1964)>, <예약(1966)>, <울(1968)>, 등 노골적인 한국어 혹은 한자어 제목으로 드러난다.
 - 그중에서도 <가사>와 <가락>은 서구의 음렬기법이 한국적 소리 상(像)에 종속되도록 자유롭게 운용됨으로써 윤이상의 고유한 ‘주요음기법’이 창안된 산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영상(이마주)
 - 윤이상 음악의 특징 중 하나가 그림음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는 대상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다만 단지 그려낸다고보다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갈등의 극복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고 위와 같은

제스처를 담은 첫 음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밀스 칼리지 전 자음악연구소의 위촉에 응할 때 한국적인 인상 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철학적인 깊이까지 보이려 하였다.

- 강서고분 벽화의 청룡(동), 백호(서), 주작(남), 현무(북)는 모두 비현실적인 동물로 인간의 시점에서 볼 때는 하나로 간주할 수 있는 유사점이 있다. 따라서 네 개의 악기를 통해 네 마리의 동물을 그려내는 이면에는 다른 시점을 가진 인간들의 공통적 내면이 투영되는 예술성을 지닌다.
- 서대문형무소와 서울대병원이라는 작곡 장소가 작품의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일부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 밤이여 나뉘어라

- 1960년대의 실험적 시기를 거쳐 1970년대에 윤이상은 협주곡과 같은 좀 더 큰 규모의 악기편성을 통해 청중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꾀하는데, 대개의 작품들이 고전적인 제목과 프로그램적인 내용을 지닌다. 예를 들면 <첼로협주곡(1976)> - 자화상, <플루트 협주곡(1977)> - 비구니 설화, <이중협주곡(1977)> - 견우직녀이야기 혹은 남북분단, <바이올린 협주곡 1번(1981)> - 포로된 인간의 절망 등이 있다.
- <밤이여 나뉘어라(1980)>에서는 위와 같은 추상성보다 언어(가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하는 첫 작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 시인 넬리 작스(1891~1970)는 나치를 피해 북유럽으로 망명했던 유대인으로 윤이상은 그녀의 시집 ‘밤이여 나뉘어라(1971년 사후 출간)’에서 세 편을 선택해 그녀 자신이 서있던 과거와 당대를 하나의 시간으로 융해했던 것처럼 자신의 시간들도 음악으로 끼어들게 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한 나치와 그 여파로 동과 서로 분단된 독일, 그 뒤로도 여전한 이데올로기의 양립, 굳이 한국전쟁·남북분단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위기는 불의로 인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침묵하는 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일임을 호소하고픈 한 예술가의 양심으로 서구사회에 받아들여졌다. 이는 뛰어난 작곡가에서 존경받는 예술가로 격상되는 전환점이므로 그 가치가 뛰어나다.

< ○○○ 문화재전문위원(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한국사) >

- 문화재명칭(안) : 작곡가 윤이상 수고 악보
- 윤이상 선생은 서양의 기법으로 작곡하여 동서양 문화와 정서를 그의 음악 세계에 담아낸 뛰어난 작곡가이다. 주로 활동한 독일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 1917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 부산,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고, 1956년

프랑스로 건너간 후 다음 해인 1957년 독일에 정착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다. 1963년 북한을 방문, 강서고분을 견학하고 그곳에서 지인을 만난 일로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69년 국제적인 구명운동에 힘입어,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어 독일로 돌아왔다. 이후 독일에서 매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 윤이상 선생 수고 악보가 베를린에 있는 유가족에 의해 보존 관리되고 있고, 문화재청은 2007년 전문가를 베를린 현지에 파견하여 악보 현황 및 문화재적 가치 유무를 검토, 2008년 『작곡가 윤이상 선생 수고악보』라는 제명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121건의 악보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상기 보고서는 “윤이상 선생의 수고악보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그 지명도나 가치로 보아 매우 타당”하다고 하고, 문화재 등록 검토시 121건의 악보 중 ‘9.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락(1963)>’, ‘20.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영상(1968)>’을 포함하여 48건의 악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윤이상 선생의 관련 유품까지도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내리고 있다(꼭 앞의 번호는 상기 보고서 상의 악보 목록 번호이며, 괄호 안은 작곡연도).
- 윤이상 기념관이 유족으로부터 확보하여 현재 보관 중인 윤이상 수고 악보는 모두 3점으로 ‘9.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락(1963)>’, ‘20.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영상(1968)>’, ‘52. 소프라노와 실내 앙상블을 위한 <밤이여 나뉘어라(1980)>’이다.
- 현재 윤이상기념관이 보관 중인 악보를 실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락> 악보는 18라인 22면임. 이 악보는 2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최초의 원본으로 보임.
 - <영상>은 미국악보에 작곡하였음. 윤이상 선생의 다른 악보가 대체로 독일 악보인데, 이 악보가 미국 악보인 이유는 윤 선생이 한국에 수감 중일 때 작곡하여, 한국에서 구하기 쉬운 미국악보에 작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밤이여 나뉘어라>는 44면 악보임.
- 등록기준인 50년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나, 윤이상 선생 수고 악보가 가지는 문화사적, 음악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가락>과 <영상>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밤이여 나뉘어라>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락>의 경우 2개의 악보 중 1개만 있으나 나머지 1개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통영시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윤이상 선생 유품 중 일부만 윤이상기념관이 확보하고 전시 중이라 하였는데, 나머지 유품도 윤이상 기념관이 조속히 인수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9.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고흥군 소재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09.11.17)된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4.2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법무부장관
- (2) 대상문화재 :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 소재지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789
 - 소유자/관리자 : 법무부장관 /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준공년도 : 1935년 9월 2일(9월 18일 사용승인)
- (3) 건축물개요
 - 설계자 : 미상
 - 건축구조 : 목조
 - 대지면적 : 4,509m²
 - 연면적 : 791.47m²
 - 수량 및 층수 : 1층, 14동
 - 건물상세 : 정문초소, 사무실, 교무실, 조사실, 의무실, 부식창고, 복도1, 복도2, 복도3, 화장실, 여사동, 용도창고, 제1호 취사장, 남사동
- (4) 검토 내용 : 문화재 등록 여부 검토

라. 검토의견

<'10.4.2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 근대기 행형시설의 도면은 다수 보존되어 있으나 시설(건축물) 전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유일함.
- 건물의 노후화는 심하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보수, 복원이 가능하고 전시관 등으로 활용한다면 일제강점기 행형시설과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과 인권유린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음.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온 본 소록도지소는 소유주인 법무부에서 철거와 관할 지자체로의 관리처분을 검토한 바 있고, 활용을 위한 보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멸실의 우려가 있음.
- 관리자인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문화재로 등록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정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나, 등록 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화재청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 따라서 법무부, 지자체로부터 예산확보 및 구체적 활용계획 추진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단계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신청한 14동 건물 전체가 등록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일제강점기 당시 증가되는 나환자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1935년 건축된 소규모 교도소 시설로 기능 중심의 배치, 평면구성, 공간구조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나환자 관련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된 소록도에서 기존의 등록문화재와 함께 소록도 특유의 역사성, 지역성 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시설임.
- 현재 구 서울구치소(사적 324호)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로 등록, 지정된 교도소 관련시설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교도소 시설 중 유일하게 현존한다는 희귀성·독창성을 지닌 시설임.
- 이상의 사실들에 의해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는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 단, 현재 시설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매우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어 보수공사에 많은 예산의 투자가 예상되므로, 문화재청의 예산 능력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방 교정청에서는 전국 유일의 교정역사 박물관으로 활용계획을 추진 중임.
- 우선 광주지방 교정청에서 자체적 예산을 부담하여 건축원형 중심의 보수를 통해 교정시설 박물관으로 개관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식이 합

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도시계획)

- 일제강점기 교도소 건축물의 전형으로서, 시설구조 및 행형사의 변천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로서 의미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시설의 상태가 훼손 및 붕괴 우려가 있어 보존여건이 불량하여 상당부분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소유주인 광주지방교정청의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활용계획에 근거하여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음.
-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일곽 및 내부시설은 등록가치가 있음.
- 등록시 명칭은 「구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로 함이 타당하다고 봄.

<근대문화재과 의견>

-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는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과 인권 유린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교도소 건축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소유자인 법무부(광주지방교정청)가 교정역사 박물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 추진 중임을 밝혀옴.
- 다만, 현재 건물 훼손정도가 매우 심하여, 신청대상 가운데 원형이 잘 남아 있는 여사동(47.28㎡)을 등록하고, 교정역사 박물관 진행과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여사동」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결과 : 원안가결

- 문화재 등록예고함.
 - 명칭은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여사동’으로 함.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조사보고서('10.4.21) 1부.

< 붙임 >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2. 용 도 : (현) 미사용 (원) 교도소
3. 소재지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789
4. 소유자 : (현) 법무부 (원) 법무부
 - 현소유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연와조적조, 기와지붕 ○ 준공일 : 1935년 9월18일
 - 대지면적 : 4,509㎡
 - 건축면적 : 791.47㎡
 - 연면적 : 791.47㎡
 - 층수, 높이 : 지상1층, 14동(전체 21동)

6. 구조 및 양식

가. 건축양식

- 적벽돌 조적조의 기와지붕(일부 함석 또는 슬라브)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교도소 건물
- 국가기록원 발간(2010. 4. 30) 「일제시기 건축도면해제 III, 법원·형무소편」을 참고하면, 국가기록원 목포형무소 원제주지소의 배치형식과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는 상당한 기능배치에서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음.
- 전면진입부로부터 사무실, 좌측의 여사동 및 후면의 남사동, 그리고 지원을 위한 의무실, 취사장 등 관련제실이 보안등급 및 기능적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치됨.



그림 59 구글 항공사진



그림 60 국가기록원 자료

나. 주요특징

- 나환자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1935년 건축된 특수기능 교도소
- 남사동, 여사동을 중심으로 식당, 목욕탕, 창고, 사무실 등 14개동의 건물에 의해 구성

- 소규모 교도소로서 기능 중심의 배치, 평면구성, 공간구조 등을 잘 보여주는 시설
- 교도소 건축물의 전형으로서, 일제강점기 시설구조 및 행형사의 변천과정을 지니고 있어 건조물로서 의의가 있음.
- 제출서류에는 오래된 전경사진 및 관련도면이 첨부되어 있으나, 국가기록원 발간(2010. 4. 30) 「일제시기 건축도면해제 III, 법원·형무소편」을 참고하면, 일제강점기의 형무소의 원형을 알 수 있는 실재하는 건조물은 서대문형무소 등이 실존함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외곽으로 이전사업 등을 통하여 그 당시의 건축물은 현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는 현존하지만, 도면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 기존자료의 보관 및 정리의 필요성이 있음.
- 대부분의 행형시설(교도소)의 배치는 전면에 청사와 사무실, 구치감(拘置監)과 여감(女監)이 배치되고 중간에 교회당, 취사실, 욕실, 창고, 병감(病監) 등이 배치되며, 가장 후면에 남감(男監)과 공장 등이 배치된다. 그리고 감방은 중앙에 감시소를 중심으로 T자형 또는 방사형으로 배치된다.
- 본 소록도 지소는 소규모로서 전면의 청사(사무동)와 후면의 남자감옥을 중간에 긴 복도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 여감과 조사실, 의무실, 취사장 등을 복도로 연결한 배치를 하고 있다.

7. 연혁

- 1935년 4월 20일 기공
- 1935년 9월 2일 준공(9월 18일 건축물 대장 사용승인)
(조선 나예방협회에서 공사비 일체 부담. 건축 후 정부에 기증)
- 1935년 9월 5일 광주형무소 소록도 지소 개칭
- 1935년 11월 19일 수용개시
- 1962년 2월 27일 광주교도소 소록도 지소로 개칭
- 1969년 8월 11일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로 변경
- 1998년 수용 중지
- 2005년 8월 12일 직제상 폐지

8. 수리기록

- 최근 풍수해로 인해 일부시설을 수리하였으나, 현재 활용가능한 여건은 아님.

9. 문화재보존여건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축된 지 75년이나 되고, 1998년 수용을 중지하면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전체적으로 시설의 노후화 현상이 심각하고, 시설중 일부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풍수해로 인해 붕괴의 우려가 있음.
- 전체 배치, 구조, 형태, 재료 등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보수설계도가 보존되어 있어 복원에는 문제가 없음.



그림 61 수감실 바닥 붕괴



그림 62 취사장 붕괴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과거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소록도는 아름다운 경관과 연륙교 개통, 그리고 주변의 나로호 우주선발사기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과 가까워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음
- 또한, 소록도에는 구소록도갱생원 검시실, 감금실, 사무본관 및 강당, 만령당, 식량창고, 신사, 등대, 구녹산초등학교 교사, 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 교사, 원장관사 등 10건의 등록문화재와 1건의 전남문화재자료(자혜의원)가 등록(지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의미있는 시설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 관할청인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지소 내 14동의 건물을 보존하여 교정 역사박물관을 조성하고, 직원숙소를 프로그램 숙소와 교육실로 개조함으로써 교정행정의 체험 및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나환자 치료 및 주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소록도 내에서 한적한 위치의 숲 속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 환경은 양호
- 최근 소록대교 개통이후 많은 관광객이 소록도를 방문하고 있고, 중앙공원 주변지역 등록문화재와 연계하여 개방하여 한센병 환자의 흔적으로서 관람하면 바람직한 시설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소유주가 동의하여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10.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단국대 교수, 건축사)>

- 근대기 행형시설의 도면은 다수 보존되어 있으나 시설(건축물) 전체가 남아있는 것으로는 유일함.
- 건물의 노후화는 심하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보수, 복원이 가능하고 전시관 등으로 활용한다면 일제강점기 행형시설과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과 인권유린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음.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온 본 소록도지소는 소유주인 법무부에서 철거와 관할 지자체로의 관리처분을 검토한 바 있고, 활용을 위한 보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멸실의 우려가 있음.
- 관리자인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문화재로 등록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정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나, 등록 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화재청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 따라서 법무부, 지자체로부터 예산확보 및 구체적 활용계획 추진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단계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신청한 14동 건물 전체가 등록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충청대 교수, 건축사)>

- 일제강점기 당시 증가되는 나환자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1935년 건축된 소규모 교도소 시설로 기능 중심의 배치, 평면구성, 공간구조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나환자 관련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된 소록도에서 기존의 등록문화재와 함께 소록도 특유의 역사성, 지역성 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시설
- 현재 구 서울구치소(사적 324호)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로 등록, 지정된 교도소 관련시설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교도소 시설 중 유일하게 현존한다는 희귀성, 독창성을 지닌 시설
- 이상의 사실들에 의해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는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 단, 현재 시설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매우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어 보수공사에 많은 예산의 투자가 예상되므로, 문화재청의 예산 능력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방 교정청에서는 전국 유일의 교정역사 박물관으로 활용계획을 추진 중
- 우선 광주지방 교정청에서 자체적 예산을 부담하여 건축원형 중심의 보수를 통해 교정시설 박물관으로 개관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식이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충남대 교수, 도시계획)>

- 일제강점기 교도소 건축물의 전형으로서, 시설구조 및 행형사의 변천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시설로서 의미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시설의 상태가 훼손 및 붕괴 우려가 있어 보존여건이 불량하여 상당부분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소유주인 광주지방교청청의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활용계획에 근거하여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근대문화재 등록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음.
- 광주지방교청청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일곽 및 내부시설은 등록가치가 있음.
- 등록 시 명칭은 “구) 광주지방교청청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로 함이 타당하다고 봄

10. 「밀양 명례성당」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밀양 명례성당」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10.1.26)된 「밀양 명례성당」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5.1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밀양 명례성당」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1122
 - 소유자/관리자 :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준공년도 : 1938년
- (3) 건축물개요
 - 설계자 : 미상
 - 건축구조 : 한식목조
 - 대지면적 : 2,274m²
 - 연면적 : 49.59m²
 - 수량 및 층수 : 1동, 지상 1층
- (4) 검토 내용 : 문화재 등록 여부 검토

라. 검토의견

<'10.5.14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명례성당은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양과 김해를 잇는 나무가 있던

곳으로 경관이 좋은 곳임. 또한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1828-1866)가 출생한 곳이며 신석복의 순교를 가능케 한 교우촌이 형성된 곳으로 역사성이나 장소성은 인정되나 건물의 외관, 지붕, 내부기둥 등 너무 변형이 심함.

- 등록문화재로서는 미흡하며 노거수인 포구나무를 포함한 성지를 지방문화재로 지정 검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 중부 지방에 비해 비교적 신앙전과가 늦었던 영남지역의 초기 교우촌으로 교회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며, 남·녀석이 구분된 한옥성당의 드문 실례로서 건축사적 가치도 있음. 또한 초창 당시의 재대(1897년)와 장미의 성모상(1938년), 십사처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교회건축사적 학술가치가 매우 높음.
- 그러나 외관(지붕과 외벽)이 변경되었고, 타 종파·타 지역의 한옥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등록가치는 다소 미흡함.
- 이 곳은 사라져 가는 옛 나루터 마을, 매우 드문 박해시대의 강변 교우촌, 순교성인과 한국 땅에서 서품된 최초의 사제와 연관된 장소 등 교회사적 지로서의 장소성이 높으므로 등록문화재 보다는 시·도지정문화재(지방기념물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명례성당은 국내 천주교 도입 초기에 해당되는 1887년에 설립된 이후 영남지역 및 마산교구에서 초기 전도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성당으로 천주교, 지역적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성당임.
- 현존하는 성당 건물은 1938년 재건된 목조한옥형식의 성당으로 내부는 한옥성당의 건축원형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는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훼손된 후 지붕은 합석으로 덧씌우고 외벽은 시멘트로 덧씌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이 대부분 상실되고 변형된 상태임.
- 명례성당이 천주교, 지역적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 건물은 외관의 건축원형이 대부분 변형되고 또한 유사한 형식의 한옥성당이 다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천주교, 지역적 역사의 보존을 위해 내부는 한옥성당의 독특한 목조가구식 구조체 및 내부공간 구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외부는 본래의 건축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 명례성당은 1930년대 말 건립된 성당 건축물로 영남지역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건물의 지붕 및 외관의 변형이 심하여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결과 : 부결

- 등록예고를 부결함.
 - 등록가치 미흡함.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조사보고서('10.5.14) 1부.

< 붙임 >

밀양 명례성당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명례성당 (구) 명례성당
2. 용 도 : (현) 성당 (원) 성당
3. 소재지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1122
4. 소유자 : (현) (재)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원) (재)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 현소유자 주소 : 경남 마산시 완월동206번지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한식 목조 ○ 준공일 : 1938년
 - 건축면적 : 49.59m²
 - 연면적 : 49.59m²
 - 층수, 높이 : 지상1층
6. 구조 및 양식
 - 가. 건축양식
 - 전면 5칸, 측면 2칸, 3량가, 민도리식 목조한옥으로 팔작지붕 형식
 - 나. 주요특징
 - 내부공간 구성에서 남,녀 신도의 구분을 신도석 중앙부에 기둥을 세워 구조체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
 - 전통한옥 보다는 창의 위치가 높고 근대기의 창호형식을 갖춤.
7. 연혁
 - 1887년 : 명례에 남서부경남(마산교구관할지역) 최초의 공소설립
 - 1897년 9월 : 명례본당 설립
 - 1903년 : 마산본당의 공소가 됨
 - 1926년 5월 : '재건 명례본당' 설립
 - 1928년 8월 : 한식목조 기와 건물인 옛 성당 신축 축성
 - 1930년 : 본당을 삼량진으로 옮기고 삼량진본당 공소가 됨
 - 1935년 : 성당건물 태풍으로 전파, 이후 1996년까지 진영본당의 공소가 됨
 - 1938년 : 본래의 성전 위치에 축소된 규모로 현재의 성당건물 준공
 - 2008년 : 명례성지 조성 추진위원회 출범하여 성지로 조성 중임
8. 수리기록
 - 2003년 태풍 매미로 훼손되어, 지붕 및 외벽을 보수하였음.

9. 문화재보존여건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훼손된 후 지붕은 합석으로 덧씌우고 외벽은 시멘트로 덧씌워, 외관은 전체적으로 건축원형 대부분이 상실되고 변형된 상태이나, 내부는 한옥성당의 건축원형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있음.
- 두 번째 열(제단 앞)의 가운데 기둥은 제대를 향한 시각 확보를 위해 없애고 두 개의 기둥으로 보강하였음.
- 서까래 및 기둥(외벽)의 노후화가 심함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김해와 밀양을 잇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명례’는 나루에 걸맞게 예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요지이다. 그러나 도로의 확충과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마을의 규모는 작아지고 번성했던 모습은 역사 속에 뒤로 한 채 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다.
- 이곳은 천주교 마산교구의 첫 본당으로 마산교구의 영적인 고향이며,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의 출생지로서 그 생가터가 바로 이웃하고 있으며. 한국땅에서는 첫 사제로 서품된 강성삼신부의 첫 사목지이자 돌아가신 곳으로 교회사적 가치가 높다.
- 천주교 마산교구에서는 2008년 명례성지 조성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성지로 조성 중에 있으며, 상시 안내자의 활동과 주변대지 매입 추진(순교성인 신석복 마르코의 생가터) 등 보존여건은 좋다.
- 낙동강 변의 언덕에 위치하여 항상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태풍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전반적 보존여건은 불리하다.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소유주가 동의하여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하였음.
- 현재 성당측에서는 명례성지 조성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명례성당의 등록문화재 등록 및 성지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0.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 명례성당은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양과 김해를 잇는 나루가 있던 곳으로 경관이 좋은 곳이다. 또한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1828-1866)가 출생한 곳이며 신석복의 순교를 가능케한 교우촌이 형성된 곳으로 역사성이나 장소성은 인정되나 건물의 외관, 지붕, 내부기둥 등 너무 변형이 심하다.
- 등록문화재로서는 미흡하며 노거수인 포구나무를 포함한 성지를 지방문화재로 지정 검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위원)>

- 중부 지방에 비해 비교적 신앙전파가 늦었던 영남지역의 초기 교우촌으로 교회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며, 남·녀석이 구분된 한옥성당의 드문 실례로서 건축사적 가치도 있음. 또한 초창 당시의 제대(1897년)와 장미의 성모상(1938년), 십사처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교회건축사적 학술가치가 매우 높음.

- 그러나 외관(지붕과 외벽)이 변경되었고, 타 종파·타 지역의 한옥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등록가치는 다소 미흡함.
- 이 곳은 사라져 가는 옛 나루터 마을, 매우 드문 박해시대의 강변 교우촌, 순교성인과 한국 땅에서 서품된 최초의 사제와 연관된 장소 등 교회사적지로서의 장소성이 높으므로 등록문화재 보다는 시·도지정문화재(지방기념물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명례성당은 국내 천주교 도입 초기에 해당되는 1887년에 설립된 이후 영남지역 및 마산교구에서 초기 전도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성당으로 천주교, 지역적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성당임.
- 현존하는 성당 건물은 1938년 재건된 목조한옥형식의 성당으로 내부는 한옥성당의 건축원형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는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훼손된 후 지붕은 함석으로 덧씌우고 외벽은 시멘트로 덧씌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이 대부분 상실되고 변형된 상태임.
- 명례성당이 천주교, 지역적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 건물은 외관의 건축원형이 대부분 변형되고 또한 유사한 형식의 한옥성당이 다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천주교, 지역적 역사의 보존을 위해 내부는 한옥성당의 독특한 목조가구식 구조체 및 내부공간 구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외부는 본래의 건축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11. 「부안 당산마루」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부안 당산마루」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로 등록 신청('10.05.04)된 「부안 당산마루」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05.13)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부안 당산마루」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77
 - 수량·규모
 - 1동, 정면 5칸, 측면 2칸 목조 기와지붕
 - 건축면적 : 116.07m²
 - 대지면적 : 823m²
 - 소유자/관리자 : ○○○
 - 건축년도 : 1937년
- (3) 검토 내용 : 문화재 등록 여부 검토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05.13)

-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 평면 구성이 양쪽에 전후퇴를 붙인 겹집으로 근대한옥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음식점으로 활용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부안지역 교육 선각자인 춘헌 이영일 선생의 육영사업을 기리는 향토사적인 가치와 함께 근대한옥의 특성도 일부 지니고 있어 지방문화재로 지정 권고함이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기본적 건축형식은 근대한옥으로 본래 사랑채였으나 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후면부와 측면부가 증축되고 내부 일부가 변형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형식의 근대한옥 다수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전체 일곽에서 사랑채만 남아 있으며, 일부 건축물을 증축하여 식당 및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에 미서기문을 덧대는 등 상당부분 변형되어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타지역 근대기에 건축된 주거건축에 비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근대문화재과 의견>

- ‘부안 당산마루’는 전통가옥의 사랑채로서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음식점으로 사용되면서 내외부의 많은 부분이 변형·훼손되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결과 : 부결

- 등록예고를 부결함.
 - 등록가치 미흡함.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10.05.13) 1부.

< 붙임 >

부안 당산마루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부안 당산마루 (구) 춘헌 이영일선생 사랑채
 2. 용 도 : (현) 음식점 (원) 사랑채
 3.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77
 4. 소유자 : (현) ○○○ (원) 춘헌 이영일
- 현소유자 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808-3 동신무지개아파트 ○○○

5. 건축물 개요

- 설계자 : 미상
- 시공자 : 미상
- 건축구조 : 목조 기와지붕, 1동, 정면 5.5칸, 측면 3칸
- 준공일 : 1937년
- 대지면적 : 823m²
- 건축면적 : 116.07m²
- 연면적 : 116.07m²
- 층수(높이) : 1층(m)

6.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근대건축사)>

가. 건축양식

- 정면 5.5칸 X 측면 3칸, 7량가의 민도리식 한옥

나. 주요특징

- 평면구성이 양쪽에 전후퇴를 붙인 겹집으로 근대한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후에 개조된 것이지만 전면 및 우측면 퇴칸 끝에 유리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근대한옥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
- 내부공간의 개조로 인해 기둥 위치, 천장높이 등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음.

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37년 : 부안지역 교육 선각자인 춘헌 이영일 선생이 건축
- 1953년 이후 : 1953년 이영일 선생이 타계한 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안채가 헐리고 그 자리에 원불교 교당이 들어섬.
- 1990년 : 현 주인이 매입하여 '당산마루'라는 음식점으로 활용
- 1997년경 : 후면 거실부분 증축

라.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음식점으로 활용하면서 후면과 좌측으로 실을 덧달아 공간을 확충하였고, 내부 실도 개조하는 등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와 골조는 유지하고 있음.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길 건너 맞은편에 중요민속자료인 ‘부안 서문안당산’이 있고 인근에 등록문화재인 ‘구 부안금융조합’과 중요민속자료인 ‘부안 동문안당산’, 전라북도 민속자료인 ‘부안 남문안당산’ 등이 있어 교육·관광장소로 연계할 수 있음.

○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마. 등록 등 가치의견

○ 근거 또는 사유

- 이 건물을 지은 원 소유주 춘헌 이영일선생은 일제강점기 말과 해방 직후 부안 지역에서 부안중학교와 부안농림학교 그리고 부안여자중학교 등을 설립 개교하여 일제의 강압적 통치로 암울했던 시기에 민족교육에 앞장섰던 부안지역 교육의 선각자임.
- 부안지역 교육 선각자인 춘헌 이영일선생의 육영사업을 기리는 향토사적인 가치와 함께 근대한옥의 특성도 일부 지니고 있는 점 등 보존가치가 있으나 음식점으로 활용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계속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원형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음.
-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지방문화재자료 등으로 보존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건축사)>

가. 건축양식

- 1937년 건축된 사랑채 건물로 근대한옥 형식이고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 팔작지붕 형식

나. 주요특징

- 본래 양반주택의 사랑채 건물로 구조, 평면, 공간, 형태, 장식 등에서 근대한옥의 건축기법을 예시

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37년 건축(상량문 기록)
- 1990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1997년 후면부 증축

라.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본래 사랑채였으나 음식점으로 사용되면서 후면부가 전면 증축되고 측면부가 부분적으로 증축되는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이 변형된 상태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그동안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며 건축원형의 많은 부분이 상업적 목적으로 변형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적 보존·활용 여건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소유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에 동의하여 신청

마. 등록 등 가치의견

○ 근거 또는 사유

- 부안지역 근대교육의 선구자였던 춘헌(春軒) 이영일(李永日) 선생의 고택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로 1937년 사랑채로 건축되었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근대한옥 형식
- 1990년 이후 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후면부가 전면 증축되고 측면부가 부분적으로 증축되고 내부 일부가 변형되는 등 본래 건축원형의 많은 부분이 변형된 상태
- 부안지역 근대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건축원형의 많은 부분이 변형된 상태이고 또한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근대한옥 다수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

○ 등록시 문화재 명칭

- 등록시에는 ‘당산마루’가 아니라 본래 건물의 명칭대로(예, 부안 춘헌고택 사랑채)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도시계획)>

가. 건축양식

- 전통가옥의 사랑채
- 팔작지붕, 정면5칸 × 측면 2칸, 툇마루
- 안채는 사랑채 서쪽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지금은 원불교 부안교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랑채만 남아있음.



항공사진(Daum)



전경



전면부 전경



후면부 전경(증축연결활용)

나. 주요특징

- 사랑채 툇마루 전면에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전체적인 사랑채의 모습을 알 수 없으며, 후면부는 증축하여 실내공간화하여 사용하고 있음.
- 큰방은 부분적으로 개조되었으며,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음.
- 툇마루 상부에는 합판으로 궁륭천장형태를 만들고 있음.

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상량문 “歲在丁丑二月二十八日巳時上樑 孺人之五福應天三光”을 근거로 1937년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동안 여러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1990년경 현 주인이 매입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면 건물 후면부를 현대식 건축물을 증축하여 식당 및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사랑채 내부도 식당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분합문을 판벽으로 조성하거나 기존 벽체를 철거하여 사랑채의 원형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기둥상부 및 하부에 철띠로 보강한 흔적이 있음



라.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주거건축에서 안채 및 행랑채는 사라지고, 현재는 사랑채만 남아있음.
 - 사랑채도 다수의 소유주 관계를 거치면서 내부 원형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한정식당(당산마루)으로 활용중이며,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마. 등록 등 가치의견

- 근거 또는 사유
 - 전체 일곽에서 사랑채만 남아있으며, 현재 사랑채는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건축물을 증축하여 덧대거나 외부에 미서기문을 덧대는 등 상당부분 변형이 일어난 상태이어서, 타지역 근대시기에 건축된 주거건축에 비하여 그다지 유형적인 가치가 높지않다고 사료됨.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
 - 특이의견 없음

12. 등록 제64호 「군산 동국사 대웅전」 문화재 추가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기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64호 「군산 동국사 대웅전」의 등록범위를 추가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초 「군산 동국사 대웅전」은 대웅전과 요사채가 등록문화재 제64호로 등록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종각’을 추가 등록신청(‘10.3.16)해 음에 따라 등록범위를 추가하고자 부의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조계종 동국사
- (2) 대상문화재 : 「군산 동국사 대웅전」
 - 추가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안)
수량·규모	1동(대웅전·요사채) 연면적 479.3㎡	2동(대웅전·요사채, 종각) 연면적(측량면적)
소재지	전북 군산시 금광동 168-4	전북 군산시 금광동 168-4, 135-1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05.13)

-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 본 종각은 1919년에 건립된 일본식 불교 종각으로 에도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와 함께 희소가치가 큼. 경내에는 같은 시기, 같은 양식으로 지어진 대웅전과 요사채가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종각을 함께 포함하여 등록함이 타당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국내에서는 현존 사례가 드문 일본 전통양식의 소규모 종각 건물로,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동국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시기도 오래되고 건축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등록가치가 높아 기존 등록범위에 추가 등록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화강석 견치석쌓기 기단부에 방형 초석을 두고 그 상부에 정교하게 다듬은 소반과 경사진 방주 등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종각으로 그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 동국사 대웅전에 일괄으로 등록 보존 관리함이 바람직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 ‘군산 동국사 종각’은 요사(쿠리 庫裏)가 연결 구성된 대웅전(훈도오 本堂) 앞쪽에 일본 전통양식으로 건립된 불교 건축물로서 건립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기존 등록범위에 추가하여 등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문화재 명칭은 ‘군산 동국사 대웅전 및 종각’으로 변경 필요.

마. 검토결과 : 원안가결

- 문화재 추가 등록을 예고함.
 - 명칭은 ‘군산 동국사 대웅전 및 종각’으로 함.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관계전문가 조사보고서('10.05.13) 1부.

< 붙임 >

군산 동국사 종각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동국사 종각 (구)
2. 용 도 : (현) 보호각 (원)
3.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4. 소유자 : (현) 조계종 동국사 (원)
 - 현소유자 주소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5. 건축물 개요

- 설계자 : 미상
- 시공자 : 미상
- 건축구조 : 일식 타니즈미기단, 목조 기와지붕
- 준공일 : 1919년
- 대지면적 : 479.30m²
- 건축면적/연면적 : 6.7m²
- 층수(높이) : 1층(m)

6.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근대건축사)>

가. 건축양식

- 사방 1칸의 일식 목조 종루건축

나. 주요특징

- 경사진 기단 위에 안솔림한 4개의 사각기둥이 지붕틀을 지지하고 있으며 기단, 초석, 공포, 화반(카에루마타) 등 모든 부재에서 일본건축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일식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한식 팔작지붕에 한식 시멘트 기와가 올려져 있음.
(원래는 일식기와)
- 지붕틀은 처마도리 위에 동자주를 세워 하부도리와 중도리, 마루도리를 받치는 일종의 트러스구조(小屋組)로 결구되어 있음.
- 1919년 제작한 일본 교토 다카하시 장인이 만든 동종이 달려있으며 바닥에는 향아리를 묻어 종소리를 반사시켜 새로운 진동음을 내는 율통이 있고, 동종에는 범종제작을 도운 시주자 명단과 함께 금강사(동국사)의 창건내력과 일본 국왕을 칭송하는 시구가 적혀있음.
- 범종각 주위 기단 위에는 화강암 석불상 관세음보살 삼십이응신 32기(원래 뒷산에 위치했었다고 함)와 각 띠별 12지 수본존 보살 8기가 놓여있음.

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09년 일본인 승려 내전불관(內田佛觀)이 군산에 조동종(曹洞宗) 포교소를 개설 (명칭은 금강사).
- 1913년 7월 현재의 자리로 옮겨 본당(대웅전)과 고리(庫裡)를 신축.
- 1919년 종각을 신축하고 중(일본식)을 봉안하고 석조불상 33개를 만들어 뒷산에 세움.
- 1920년 변재천당(辨財天堂) 신축
- 1932년 본당과 고리, 개산당(변재천당) 재건
- 해방 후 한국스님이 거주, 금강사를 인수하여 동국사로 개칭하고 조계종에 등록.
- 수차 부분적으로 보수하였으며, 종각은 큰 보수가 없었고 1980년대 한식 시멘트 기와로만 교체

라.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함.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경내에 대웅전이 이미 등록문화재 제64호로 등록되어 있고, 석가삼존불(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13호)과 미지정 문화재가 다수 있으며, 동국사의 경역을 정비해가고 있으므로 보존과 활용의 주변여건은 양호함.
-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마. 등록 등 가치의견

- 근거 또는 사유
 - 동국사는 일본불교가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식민지 수탈정책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현재까지도 본래의 사찰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대웅전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바 있음.
 - 본 종각은 1919년에 건립된 일본식 불교 종각으로 에도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와 함께 희소가치가 큼.
 - 경내에는 같은 시기, 같은 양식으로 지어진 대웅전이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따로 등록하기 보다는 함께 포함하여 ‘군산 동국사 대웅전 및 종각’으로 등록함이 타당함.
- 등록시 문화재 명칭
 - ‘군산 동국사 대웅전 및 종각’

<○○○ 문화재위원(건축사)>

가. 건축양식

- 1919년 건축된 일본 전통양식의 종각 건물

나. 주요특징

- 등록문화재 64호로 등록된 군산 동국사 내에 위치

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09년 동국사 개창
- 1913년 현존하는 대웅전 및 요사채 건축
- 1919년 종각 건축
- 2003년 대웅전 등록문화재 64호로 등록 (2007년 요사채 추가 등록)

라.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건축원형의 전체적 보존상태는 양호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동국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고 동국사에는 등록문화재 64호로 등록된 대웅전 및 요사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동국사 석가삼존불 등의 문화재와 함께 위치하고 또한 사찰 측에서도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지가 적극적이므로 보존·활용 여건은 매우 양호
-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사찰 측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에 동의하여 신청

라. 등록 등 가치의견

- 근거 또는 사유
 - 동국사 내에 위치한 부속건물로 1919년 건축되었으며, 국내에서는 현존 사례가 드문 일본 전통양식의 소규모 종각 건물
 -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동국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시기도 오래되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며, 단독적으로 등록하기 보다는 기존 등록범위에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현재 종각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가건물 형식의 차고는 종각의 보존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되어야 함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
 - 현재 종각의 전체적 보존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 등록시 문화재 명칭
 - 기존의 등록 범위에 추가로 포함시켜 별도의 등록 명칭은 없이 ‘등록문화재 제64호 군산 동국사’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

<○○○ 문화재위원(도시계획)>

가. 건축양식

-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동국사 내 종각으로서, 종각은 일제강점기에 주조된 범종

을 보관하기 위하여 건축됨.

- 주진입부 우측으로 본당이 있으며, 진입축 전면에 종각이 위치.
- 기단부 위에 방주를 경사지게 두고 종을 설치함.(金閣寺 鐘樓 참고)



동국사 배치 및 종각



종각 전경



鎌倉 建長寺 鐘樓



京都 金閣寺 鐘樓

나. 주요특징

- 화강석 견치석쌓기 기단부에 방형초석을 두고 그 상부에 정교하게 다듬은 소반(礎盤)을 두고 있음.
- 소반위에 사각방주를 경사지게 세우고, 종을 설치함.



방형초석위 소반



기단부



범종과 가구구조



울림통



용뉴 모양

다. 연혁 및 수리기록

- 明治四拾貳年(1909년)善應佛觀和尚開創大正貳年(1913년)伽藍建立
- 범종은 日本 京都 寺町에서 高橋才治郎이 주조한 것으로 기록

라.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상태에 준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동국사 경역 내 위치하고 있음.
 - 종각의 문화재 등록시 가설건축물(차고)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마. 등록 등 가치의견

- 근거 또는 사유
 - 일제 강점기 사찰형식으로 등록된 동국사와 문화재 차원에서 공감되어야 할 자원으로, 등록문화재인 동국사와 일괄으로 등록(추가)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13. 등록 제261호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 문화재 등록말소 검토

가. 제안사항

등록문화재 제261호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07.12.31)되어 등록문화재 말소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소재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등록 제261호, '06.6.19)이 「성주 한개마을」(중요민속자료 제255호, '07.12.31)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52조에 의거 등록문화재를 말소하고자 검토 요청함.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104번지 일원
 - 형태 : 담장(토석)
 - 면적 : 111필지, 57,468㎡
 - 형성시기 : 15세기에 마을이 형성
- (2) 검토 내용 : 등록말소 여부 검토
 - 등록말소 사유 :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07.12.31)된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06.6.19)을 말소하고자 하는 것임.
 - 등록 및 지정 현황 <붙임1>

라. 검토의견

<근대문화재과>

-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이 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 중 가옥 및 담장 등이 일괄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52조제②항에 의거 등록문화재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말소함이 타당함.

마. 검토결과 : 원안가결

- 문화재 등록 말소함.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1>

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 지정 및 등록현황

등록문화재	소재지		지적(㎡)	지정문화재	비 고
성주 한개마을 옛담장 (등록 제261호)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104	463	성주 한개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55호)	지정구역
	"	105	99	"	"
	"	106	367	"	"
	"	108	803	"	"
	"	109	371	"	"
	"	110	679	"	"
	"	110-1	250	"	"
	"	111	146	"	"
	"	112	129	"	"
	"	113	142	"	"
	"	114	149	"	"
	"	116	251	"	"
	"	117	265	"	"
	"	118	469	"	"
	"	119	225	"	"
	"	120	126	"	"
	"	121	245	"	"
	"	122	172	"	"
	"	123	417	"	"
	"	124-1	387	"	보호구역
	"	284	793	"	지정구역
	"	287	456	"	"
	"	288	450	"	"
	"	289-1	577	"	"
	"	295	883	"	"
	"	296	195	"	"
	"	297-1	641	"	"
	"	297-2	397	"	"
	"	298	985	"	"
	"	299	182	"	"
	"	300	536	"	"
"	301	384	"	"	
"	302	446	"	"	
"	303	53	"	"	
"	307	1,154	"	"	
"	308	1,660	"	"	
"	309	79	"	"	
"	310	314	"	"	
"	311	724	"	"	

등록문화재	소재지		지적(㎡)	지정문화재	비 고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312	159	성주 한개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55호)	"
	"	313	60	"	"
	"	314	122	"	"
	"	315	271	"	"
	"	316	598	"	"
	"	317	324	"	"
	"	318	146	"	"
	"	319	185	"	"
	"	320	301	"	"
	"	321	327	"	"
	"	322	321	"	"
	"	323	261	"	"
	"	324	1,191	"	"
	"	326	466	"	"
	"	327	512	"	"
	"	328-2	109	"	"
	"	328-3	397	"	"
	"	329	324	"	"
	"	330	321	"	"
	"	331	367	"	"
	"	332	413	"	"
	"	333	374	"	"
	"	334	440	"	"
	"	335	1,600	"	"
	"	336	1,035	"	"
	"	337	116	"	"
	"	339	443	"	"
	"	340	253	"	"
	"	341	225	"	"
	"	342	185	"	"
	"	343	89	"	"
	"	344	433	"	"
	"	345	347	"	"
	"	346	387	"	"
	"	347	159	"	"
	"	348	415	"	"
	"	349	377	"	"
	"	372	119	"	"
	"	373	311	"	"
	"	375	704	"	"
	"	376	400	"	"
	"	377	764	"	"
	"	378	377	"	"
	"	379	1,041	"	"

등록문화재	소재지		지적(㎡)	지정문화재	비 고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380	453	성주 한개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55호)	"
	"	381	265	"	"
	"	383	727	"	"
	"	384	932	"	"
	"	385-1	374	"	"
	"	386	853	"	"
	"	387	893	"	"
	"	388	955	"	"
	"	389	724	"	"
	"	391	572	"	"
	"	408	3,074	"	"
	"	409	1,131	"	"
	"	410	1,114	"	"
	"	411	1,865	"	"
	"	411-1	122	"	"
	"	412	992	"	"
	"	413	245	"	"
	"	414	580	"	"
	"	414-1	293	"	"
	"	414-2	115	"	"
	"	415	764	"	"
	"	416	2,357	"	"
	"	417	364	"	"
	"	418	393	"	"
	"	419	218	"	"
	"	420	426	"	"
	"	421-1	1,441	"	"
	"	421-2	393	"	"
계		111필지	57,468		

14. 등록 제330호 「부산 정란각」 문화재 등록말소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 동구 소재 「부산 정란각」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말소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등록말소 신청('10.04.12)된 「부산 정란각」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말소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등록 제330호 「부산 정란각」

○ 소재지 : 부산 동구 수정동 1010

○ 소유자/관리자 : ○○○

○ 준공년도 : 1939년경

○ 등록일자 : 2007년 7월 3일

(3) 문화재개요

○ 설계자 : 미상

○ 건축구조 : 일식 목조

○ 대지면적 : 660m²

○ 연면적 : 332.76m²(주건물), 12.4m²(창고)

○ 등록사유

- 1939년에 건축된 고급 일식건물로 3칸의 맞배지붕 대문과 남향하는 몸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 일식주택의 의장요소와 변화 있는 실내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일본 주거인 쇼인조(書院造) 형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도쿄노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식 내부공간, 목조가구, 정원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근대기 주택사와 생활사의 자료로 가치가 높다.

(4) 신청 사유 : 매매에 의한 문화재 등록말소 희망

(5) 검토 내용 : 문화재 등록말소 검토

라.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

- 「부산 정란각」은 등록 당시 소유자(○○○)가 등록을 희망하였고, 적법한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된 등록문화재임.
- 등록문화재는 법적 제한 없이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고, 문화재보호법 제 49조에 의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사항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52조 문화재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마. 검토결과 : 부결

- 문화재 등록 말소를 부결함.
 - 매매는 말소 사유가 안됨.
- 출석 7명, 찬성 7명